

(사)한국생활과학회 2023년도 정기총회 및 동계연합학술대회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2023 Annual General Meeting and Winter Joint Academic Conference

사회적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생활과학의 역할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일 시 | 2023년 12월 1일(금) 9:30~17:00

장 소 | 군산대학교 아카데미홀

주 관 | (사)한국생활과학회, 충북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후 원 |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군산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단,
군산원예협동조합, 교문사, 파워북, (유)경암, 군산홈마트,
영인바이오, 순수람, 산돌팜, 제이온, 대두식품, 엘에프에스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한국 생활 과학 회



충북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사회적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생활과학의 역할

PROGRAM | 일정표 |

	시간	학술대회 세부일정	사회/좌장	우수학생논문경진대회
1부	9:30-10:00	등록 및 포스터 부착		
	10:00-10:20	개회사& 환영사 축사 유현희 학회장 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 최연성 군산대학교 부총장		
	10:20-11:00	제1부 기조강연	이정희 교수 (군산대)	우수학생논문경진대회
		발표주제 ➡ 기계적 공정성을 넘어 다양성으로 :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다양성 교육 발표자 육주원 교수(경북대학교)		- 공동실험실습관 2층 3207호- 좌장 이영민 교수(경인교대) 심사위원 이성희 교수(우석대)
		포스터 발표 및 심사		
	11:30-12:40	점심식사(군산대학교 생활관식당)		
2부	12:40-13:10	제2부 분야별 강연 및 토론		
		식생활 발표주제 ➡ 소비자 맞춤형 식생활 복지 서비스 발표자 박혜경 교수(연세대학교)	김경아 교수 (충남대)	
	13:10-13:40	의생활 발표주제 ➡ 다양성을 포용하는 패션: 사회적 약자와 소수집단을 위한 패션산업의 혁신과 대안 발표자 장세윤 실장((주)형지엘리트)	이희란 교수 (금오공과대)	
	13:40-14:10	아동·가족 발표주제 ➡ 사회적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미래 시민 교육 발표자 임은정 소장(호숫가버드나무 아동가족연구소)	이정화 교수 (부경대)	
	14:10-14:40	(사)한국생활과학회 제44차 정기총회 및 비전선포식	이정희 교수 (군산대)	
	14:40-15:10	Coffee Break		
	15:10-15:40	주생활 발표주제 ➡ 지역사회기반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과 개선방안 발표자 유성은 교수(군산대학교)	이민아 교수 (군산대)	
	15:40-16:10	소비자 발표주제 ➡ 소비자 금융소외 문제와 생활과학 관점에서의 해결방안 모색 발표자 서가연 박사(서울대학교)	송유진 교수 (충북대)	
	16:10-16:40	의생활 식생활 아동·가족 주생활 소비자 종합토론 이미숙 교수(공주대 의류상품학과) 김혜숙 교수(원광대 식품영양학과) 김수정 교수(한남대 아동복지학과) 장미선 교수(전북대 주거환경학과) 박주영 교수(충남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정상 교수 (전주대)	
	16:40-17:00	시상식 및 폐회	이정희 교수 (군산대)	

분야별 강연자료 및 포스터, 우수학생논문경진대회 초록은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조바랍니다.



| 환영사 |



유 현 희

한국생활과학회 회장, 군산대 식품생명과학부 교수

한국생활과학회 2023년 동계연합학술대회에 초대합니다.

한국생활과학회 2023년 동계연합학술대회는 [사회적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생활과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준비하였습니다.

다양한 문화, 인종, 종교, 성별, 성적 지향 등의 사회적 다양성과 이에 대한 포용성은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는 원동력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통합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생활, 식생활, 가족학, 아동학, 주거학, 소비자학 등 생활과학의 다양한 분야가 학회를 이룬 저희 ‘한국생활과학회’가 가장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육주원 교수님(경북대학교)께서 ‘기계적 공정성을 넘어 다양성으로: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다양성 교육’에 대해 저희 주제에 대해 한층 깊이 있는 기조 강연을 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각 분야별로 식생활 분야에서는 박혜경 교수님(연세대학교)께서 ‘소비자 맞춤형 식생활 복지 서비스’에 대해, 의생활 분야에서는 장세윤 실장님((주)형지엘리트)께서 ‘다양성을 포용하는 패션: 사회적 약자와 소수집단을 위한 패션산업의 혁신과 대안’에 대해, 아동·가족 분야에서는 임은정 소장님(호숫가버드나무 아동가족연구소)의 ‘사회적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미래 시민 교육’에 대해, 주생활 분야에서는 유성은 교수님(군산대학교)의 ‘지역사회기반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소비자 분야에서는 서가연 박사님(서울대학교)의 ‘소비자 금융소외 문제와 생활과학 관점에서의 해결방안 모색’에 대해 사회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문가적인 강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들 강연으로 인해 사회적 다양성과 포용성이 우리 모두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깊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충북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공동 주관으로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군산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단, 군산원예협동조합, 교문사, 파워북, (유)경암, 군산홈마트, 영인바이오, 순수람, 산돌팜, 제이온, 대두식품의 후원을 받아 진행됨으로 도와주신 기관 및 업체에 매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 한국생활과학회를 위해 열심히 도와주신 이사님, 감사님, 평이사님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 덕분에 한국생활과학회가 2023년에도 엄청난 성과와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한국생활과학회 회원님들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환영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 기념사 |

이 장 호

국립군산대학교 총장

한국생활과학회의 “2023년도 정기총회 및 동계연합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한국생활과학회는 국내 생활과학 분야 학문을 이끄는 대표적인 학회로서, 의생활, 식생활, 아동·가족학, 주생활, 소비자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동계연합학술대회의 주제는 “사회적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생활과학의 역할”로, 각 분야별 연구와 학문이 사회적 이슈와 어떻게 연결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고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생활과학은 문화, 인종, 성별, 연령 등 다양한 측면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학술대회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활과학 각 분야 전문가와 연구자들이 그간 성취해 왔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그간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공유하여, 우리 사회가 더욱 포용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3 정기총회와 동계연합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한국생활과학회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여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논문포스터발표

●○ 의생활 분야

1. 패션브랜드 마케터를 지망하는 의류학과 대학생을 위한 패션산업 전문 잡지의 유용성.. 13
장이세* · 정민수 · 심수인(전북대학교 의류학과)/p1-1
2. 성별과 연령에 따른 한국인 발의 형태 분류..... 14
권은순* · 이하경 · 이예진(충남대학교 의류학과)/p1-2
3. 유튜브 패션 룩북 콘텐츠 및 섬네일 유형화에 관한 연구..... 15
남예빈* · 김한나(충남대학교 의류학과)/p1-3
4. Fe₂O₃ Nano-particle이 적용된 실크직물의 염색성..... 16
강다예* · 이정순(충남대학교 의류학과)/p1-4
5. 남녀 대학생의 패션제품에 대한 지속가능소비행동 연구 17
이미숙*(공주대학교 의류상품학과)/p1-5
6. 비숙련자 여성의 스쿼트 자세 보조용 레깅스 디자인..... 18
강준모* · 이예진(충남대학교 의류학과)/p1-6
7. 밀착 발목 보호대의 패턴 축소에 따른 발목 지지 효과 연구..... 19
민경의* · 류다미 · 김세현 · 김태은 · 이희란(금오공과대학교 소재디자인공학과)/p1-7
8. "한복 편딩 프로젝트 '본디'(BON-D)'를 통한 생활 한복의 상품화 및 창업 프로젝트의 결과 분석"..... 20
김다혜* · 염혜정(전북대학교 의류학과)/p1-8
9. '다듬이질'이 생견직물의 강연성과 드레이프성에 미치는 영향..... 21
전채원* · 이정순(충남대학교 의류학과)/p1-9
10. 대전 YWCA에 접수된 의류제품 불만 사례 분석: 2019년 ~ 2022년에 진행한 심의 사례..... 22
전채원* · 강다예 · 김혜진 · 신미기 · 이정순(충남대학교 의류학과)/p1-10
11. 소비자의 한복 소비 실태 분석..... 23
서서영* · 강다예 · 이정순(충남대학교 의류학과)/p1-11

12. 한복에 대한 인식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	24
강다예*、이정순(충남대학교 의류학과)/p1-12	
13. 수치해석을 이용한 전신 보호복 착용 시 열적 스트레스 예측.....	25
박소영*、이예진(충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충남대학교 의류학과)/p1-13	
14. 패션 브랜드 아트 스쿨 작품에 표현된 젠더퀴어.....	26
김선영*(순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p1-14	
15. 웨어러블 기기의 물리적 특성이 제품의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27
심수인、유희정*(전북대학교 의류학과)/p1-15	
16. 스마트워치의 물리적 특성이 지각된 맛음새에 미치는 영향 : 기술수용모형의 확장.....	28
심수인、유희정*(전북대학교 의류학과)/p1-16	

●○ 식생활 분야

18. 양배추즙을 첨가한 젤리의 품질특성.....	30
파이샤샤、황선영、유현희*(군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p2-1	
19. 발효 쌀가루에 변성전분 및 잔탄검 첨가에 따른 건면의 품질특성.....	31
황선영、파이샤샤、유현희*、이현기(군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주)제이온)/p2-2	
20. 카사바 분말 첨가 곤약 젤리의 제조 및 품질특성.....	32
황선영、파이샤샤、유현희*(군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p2-3	
21. 블랙커런트 추출물이 포화지방산으로 유도된 C2C12 분화 세포에 미치는 영향.....	33
남유리*、김지민、김예지、김경아(충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p2-4	
22. 블랙커런트 추출물이 근위축에 미치는 영향.....	34
김지민*、김예지、남유리、김경아(충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p2-5	
23. 전북지역 시판 발효유제품의 관능적 특성, 제품 시장성과 포장패키지에 대한 소비자 평가 및 상관관계 분석.....	35
조유현、김현우、노정옥*、이지은(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군장대학교 스마트농식품과)/p2-6	

24. 학교급식 저탄소 채식메뉴의 영양분석 및 AI푸드스캐너와 실측잔반량법을 이용한 초등학생의 기호도 분석.....	36
최선아*·노정옥(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p2-7	

25. 글루텐 프리 한방 스낵의 품질 평가.....	38
김소희·유민*·장수빈·장진우·정예림·최일숙(원광대학교 식품영양학과)/p2-8	

●○ 아동·가족 분야

43. 보육교사의 창의 마인드셋이 교수효능감을 매개하여 창의적 교수행동에 미치는 영향.....	40
김영민*·민하영(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p3-1	

44. 어린이집의 전문성 지원환경이 보육교사의 창의적 교수행동에 미치는 영향: 놀이지원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41
황성희*·조우미(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p3-2	

45.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교사효능감 증진을 위한 순환학습기반 교사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42
구원옥*·조우미(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p3-3	

46. 국립과학관의 유아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분석.....	43
정희영*·이정화(부경대학교 유아교육과)/p3-4	

47. 순환학습기반 교사-부모협력 증진 교사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44
류은주*·조우미(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p3-5	

48. 저출산 민원 게시글에 나타난 국민의 영유아 정책에 대한 인식: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중심으로.....	45
홍향희*·이정화(부경대학교 유아교육과)/p3-6	

49. 중국 유아교사의 행복감, 직무만족도, 심리적 소진 간 관계.....	46
왕정*·서희전(부경대학교 유아교육학과·동명대학교 유아교육학과)/p3-7	

50.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찬반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7
이나련·정유진*(경기도여성가족재단·전북대학교 아동학과)/p3-8	

51. 농촌 초고령 노인의 생활수준과 삶의 질	48
이정화·오영은*·이보람·최현우(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전남대학교 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사업단·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농촌환경자원과)/p3-9	
52. 아동의 로봇 의인화에 대한 탐색 연구.....	50
임재윤*·양성은(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전공·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p3-10	
53. 그림책에 표현된 난민 경험에 대한 분석.....	51
김세라*·양성은(인하대학교 아동복지학전공·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p3-11	
53. 트랜스젠더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경험에 대한 연구.....	52
김현정*·양성은(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전공·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p3-12	
53. 요양보호사가 지각한 조직공정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직무스트레스와 조직몰입의 매개효과와 시설규모에 따른 다집단분석.....	53
홍향희*·이정화(부경대학교 유아교육과)/p3-13	
53. 농촌거주 백세인 주거환경 위험 및 낙상가능성 평가연구.....	55
SHI MIAOMIAO*·박선유·이정화(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전남대학교 사회복지학협동과정·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p3-14	

●○ 주생활·소비자·가정교육 분야

49. 초등학교 리모델링 도서관 사용 후 평가 연구.....	58
이민아*(군산대학교 공간디자인융합기술학과)/p4-1	
50. 세대교류 증진을 위한 노인주거공간의 커뮤니티 시설 사례 분석.....	59
이혜빈*·이영선·유다연·유성은(군산대학교 공간디자인융합기술학과)/p4-2	
51. 연령에 따른 주거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0
김유민*·김진서·양주연(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p4-3	
52. 청년 1인 가구 주거 양상에 관한 질적 연구 및 맞춤 주택 제안.....	61
정지호*·박지현(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p4-4	

학생논문구두발표

●○ 의생활 분야

53. 패션기업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지? : 자기소개서 문장 내용분석.....65
주가은, 권진원, 허솔민, 심수인(전북대학교 의류학과)/A1-1

54. 발목 염좌 예방 및 통증 완화를 위한 3D 프린팅 발목 보호대 개발.....66
김태은, 김세현, 류다미, 민경의, 이희란(금오공과대학교 소재디자인공학과)/A1-2

●○ 식생활 분야

56. 글루텐 프리 한방 스낵의 품질 평가.....68
김소희, 유민, 장수빈, 장진우, 정예림, 최일숙(원광대학교 식품영양학과)/A2-1

●○ 아동·가족 분야

57. 어머니와의 초기부모애착이 신입생의 대학 내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70
서진선, 김영민, 박신혜, 민하영(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A3-1

●○ 주생활·소비자·가정교육 분야

59. 노후주택의 소음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계획안.....72
이연화, 이하나, 정윤서, 김진표, 정가이, 신수영(충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A4-1

60. 농촌주택에 거주하는 노부부의 쾌적성 향상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계획안.....73
조유리, 홍상문, 고예진, 박지은, 장병준, 신수영(충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A4-2

60. 통합공공임대주택 시범사업 예비입주가구 대상 주거서비스 요구도 조사.....74
김민기, 장미선, 권오정(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건국대학교 건축학과)/A4-3

60. 선호하는 주거정책의 지원에 따른 결혼의향의 변화.....75
김지윤, 장미선(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A4-4

논문(포스터)발표

논문(포스터)발표

의생활 분야

패션브랜드 마케터를 지망하는 의류학과 대학생을 위한 패션산업 전문 잡지의 유용성

The Usefulness of Fashion Industry Magazines for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Clothing and Textiles Who Aspire to Become Fashion Brand Marketers

장이세^{1*} • 정민수¹ • 심수인²

¹전북대학교 의류학과 학사과정, ²전북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전북대학교 인간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Chang, Yee Se^{1*} • Jeong Min Soo¹ • Shim, Soo In²

¹Department of Fashion Desig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²Department of Fashion Design, Jeonbuk National University/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대학생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정보원으로 취업사이트, 유튜브, 블로그, 오프라인 강연 및 교육행사, 잡지 등이 있다. 그 중 패션산업 전문 잡지는 주로 패션 산업 내 최신 소식과 전문가 인터뷰에 초점을 맞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 잡지의 주요 구독자는 패션 산업 종사자로 아직 구직 중인 의류학과 대학생의 구독률은 낮아, 이 잡지가 의류학과 대학생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정보원으로 어떻게 유용한지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연구의 목적은 패션 브랜드 마케터를 지망하는 의류학과 대학생이 패션 브랜드 마케터가 가져야 할 소양과 역량을 파악하는 데, 패션산업 전문 잡지가 어떻게 유용한지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 패션산업 전문 잡지에 대한 문헌연구와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패션산업 전문 잡지의 역사, 전문성, 경쟁력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을 패션비즈로 선택했다. 패션비즈는 1987년 창간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패션산업 전문지로서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인정받아 2017년 주요 포털사의 뉴스검색 제휴 미디어로 선정됐고 2019년과 2020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콘텐츠잡지로 선정된 바 있기 때문이다. 패션비즈 2023년 4월호부터 9월호까지 최근 6개월치의 모든 기사를 자료로 수집했다. 내용분석은 패션 브랜드 마케터 진로에 관심 있는 의류학과 학부 3학년 재학생 2명이 수행했으며, 질적연구에 숙련된 연구중심대학 전임 교원의 지도를 받았다. 두 코더는 독립적으로 자료를 모두 읽고 각 기사가 패션브랜드 마케터가 가져야 할 소양과 역량을 파악하는 데 얼마나 유용한지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코더 간 신뢰도는 0.97인 것으로 나타나 0.70 이상으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4-5점을 받은 유용한 기사에 대해 어떤 점이 유용한지 자유기술하였다. 그 결과, 총 9개의 기사가 패션브랜드 마케터가 가져야 할 소양과 역량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5개 기사가 유용성 5점을 받았으며, 나머지 4개 기사는 유용성 4점을 받았다. 유용성 4점을 받은 기사 중 1개 기사는 두 코더 모두에게 유용하다고 평가받았다. 이 기사의 제목은 『경험에 기반을 둔 패션브랜딩』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대기업이 마케팅 과정에서 어떠한 가치를 중점적으로 두는지 알 수 있었고, 마케팅 전략에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며 오프라인-온라인 간 전략적 상호보완적 관계에 대한 중요성도 알 수 있었기에 두 코더에게 모두 유용하다고 평가받은 것으로 보인다. 패션산업 전문 잡지가 패션 브랜드 마케터가 가져야 할 소양과 역량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지만, 의류학과 대학생이 패션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현재 패션 기업들이 목표 소비자층에게 선보이는 다양한 마케팅 기법을 자세히 접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의류학과 대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가 부족한 결과는 패션산업 전문 잡지의 주 구독층이 대학생이 아니기 때문이며, 대학 교수 및 강사가 기사 내용을 직무와 연결시켜 학생들에게 설명해준다면 이 잡지의 유용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한국인 발의 형태 분류

Classification for the shape of Korean feet according to the gender and age

권은순^{*1} • 이하경² • 이예진^{**}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1},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조교수²,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Kwon, Eunsun^{*1} • Lee, Hakyung² • Lee, Yejin^{**}

Department of Clothing &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현대 한국인은 신발도 패션 아이템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종류를 상황에 맞추어 선택해서 착용한다. 신발은 심미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발에 맞지 않으면 발의 형태가 변형되거나, 부상 위험도 커진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5년간 후천성 엄지발가락의 무지외반증 진료비가 매년 13% 증가하였다고 보고하며, 그 원인으로 발에 맞지 않은 신발의 장시간 착용을 지적하였다. 현재 신발 치수는 국가표준으로 e나라표준인증(KS M 6681)에서 발길이, 발둘레, 발너비의 적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발길이 정보만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는 발너비나 발둘레에 대한 정보 없이 발길이에 의지하여 신발 사이즈를 선택해야 하며, 특정 발 형태를 지닌 소비자는 신발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대 한국인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발의 형태를 분류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여 신발 제작 시 기초자료로써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20세~69세까지 남성 2000명, 여성 2503명으로 8차 사이즈코리아(KATA, 2021)의 3D 치수 데이터 중 발 관련 치수 44항목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26.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및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발 유형을 분류한 후 사후검정으로 Duncan-test를 실시하였다. 도출된 발 유형과 성별 및 연령대의 연관성은 교차분석으로 알아보았다.

성별에 따라 44항목의 발 관련 치수 항목을 요인분석한 결과, 요인으로 묶이지 않은 항목을 제외한 후 총 22개 항목이 5개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남성 80.78%, 여성 82.27%였다. 요인 1은 발너비와 발둘레로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고유치)이 남성 27.478%(6.106), 여성 27.759%(6.106)이었고, 요인 2는 발길이로 남성 24.586%(5.407), 여성 24.445%(5.378)이었으며, 요인 3은 발가락높이로 남성 0.813%(2.379), 여성 10.972%(2.414)이었다. 요인 4는 발높이로 남성 8.878%(1.953), 여성 9.970%(2.913)이었고, 요인 5는 발내측과 각도로 남성 9.025%(1.986), 여성 9.131%(2.009)이었다. 다음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성은 3개, 여성은 4개의 발 유형이 도출되었다. 발 유형은 ‘보통 발’이 남성 44.3%, 여성 32.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좁고 납작한 작은 발’이 남성 31.9%, 여성 26.1%이었으며, 세 번째로 ‘넓고 두꺼운 큰 발’이 남성 23.8%, 여성 21.2%이었다. 즉, 성별에 상관없이 발의 유형은 유사하였다. 다만, 여성에게만 추가로 ‘변형된 보통 발’이 20.6% 나타났고, 이는 주로 50~60대에서 두드러졌다.

결론적으로 성별에 상관없이 작은 발이거나 보통 발인 경우, 현재의 신발 구매는 큰 무리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큰 발은 발길이가 길어지면서 발둘레와 너비도 동시에 증가하므로 볼이 좁거나, 굽이 있는 디자인의 신발은 착용감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50대~60대 여성은 보통 발이어도 무지외반증 등의 변형이 제법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남성은 연령대를 구분하지 않고 큰 발일 때, 여성은 20~40대는 큰 발일 때, 50대~60대는 보통 발과 큰 발일 때, 신발의 볼너비나 둘레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면 구매 후 만족도를 상승시키고, 재구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최선희, 천종숙(2006). 발 형태 분류 방법 비교. *복식문화연구*, 15(2), 60-72.

* 교신저자 :

유튜브 패션 룩북 콘텐츠 및 썸네일 유형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tents and Thumbnail Typologies of Fashion Lookbook in Youtube

남예빈* • 김한나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학사과정*,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Nam, Yebin* • Kim, Hanna

Department of Clothing &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최근 유튜브 내 콘텐츠는 소유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솔직함을 기반으로 한 주제들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패션 부문에서는 왓츠인마이백에 더불어 ‘룩북(Lookbook)’이 대중의 관심을 얻고 있다. 기존 룩북을 다룬 연구는 룩북이 패션 콘텐츠라는 점에서 패션 유튜버가 제작한 영상만을 대상으로 선정해 분석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 다수가 룩북으로 인식하고 있는 콘텐츠의 범위에 비해 연구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룩북을 ‘1인 미디어가 개인이 드러내고자 하는 본인의 매력 전달에 패션을 가미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조작적 정의하였고, 시청자들이 반드시 전문성을 가진 패션 유튜버의 룩북만을 선택해서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여, 연구범위를 룩북을 제작한 전체 유튜버로 넓혀 대중들에게 지각되고 있는 개인이 제작한 다양한 형태의 룩북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내용분석을 활용한 사례연구로 진행되었다. 콘텐츠의 수집은 2023년 3월을 기준으로 검색 키워드를 ‘룩북’으로 선택하였으며, 검색 필터를 활용하여 정렬 기준은 ‘관련성’, 구분은 ‘동영상’, 길이는 ‘4분-20분’, ‘20분 초과’로 두 번 적용하여 나온 결과물로 총 60편을 선정하였다. 범위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업로드된 영상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최근 업로드된 룩북을 대상으로 콘텐츠의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선정된 영상을 대상으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룩북 콘텐츠와 썸네일을 각각 유형화하였다.

연구 결과, 패션 룩북 콘텐츠는 3가지로 분류되었다. ‘착용자 설명 중심 룩북(20개)’은 유튜버가 자신이 소개하고자 하는 의류에 대한 객관적이고 상세한 정보에 본인의 스타일을 첨가하여 전달하는 유형이다. ‘제품 중심 룩북(15개)’은 유튜버가 본인의 옷을 소개할 때 얼굴을 등장시키지 않는 룩북으로 최대한 의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한 유형이다. ‘착용자 외모 중심 룩북(25개)’은 옷의 객관적인 정보보다는 자신이 해당 옷을 입었을 때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제작된 영상이다. 또한, 썸네일 유형화는 4가지로 분류되었다. ‘홍보성 썸네일(8개)’은 외모가 경쟁력이 되는 콘텐츠의 썸네일에서 자주 사용되는 유형으로 본인의 얼굴이나 신체사진만을 중앙으로 내세워 어떤 의복을 소개할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는 유형이다. ‘유희성 썸네일(9개)’은 즐거움을 원하는 소비자의 감성을 반영해 기존의 분위기 있는 브랜드의 모델과 같은 이미지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고 재미있는 감정을 주는 썸네일이다. ‘심미성 썸네일(23개)’은 전문적 편집 기술을 활용하여 브랜드의 컬렉션처럼 다양한 옷을 입은 인물사진을 배치해 예술적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유형이며, ‘신뢰성 썸네일(20개)’은 얼굴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옷을 보여주는 것에 집중시킨 유형이다.

본 연구는 룩북 콘텐츠에서 유튜버가 드러낸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파악하여 패션 콘텐츠에 담긴 자기표현성을 분석해 유형화하는 과정에서 이상에 제시한 조작적 정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제시했다는 점과 함께 룩북의 연구범위를 전체 유튜버로 확장해 최근 대중들

에게 지각되고 있는 범위에 걸맞은 룩북의 트렌드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Fe₂O₃ Nano-particle이 적용된 실크직물의 염색성

Dyeability of Silk fabric Using Iron oxide nano aqueous solution

강다예* • 이정순¹⁾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Kang, Dayae* • Lee, Jungsoon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산화철은 세계적으로 30~40만톤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안료이다. 그 예로 석간주라고 불리는 산화철 광물성 안료를 목재 채색에 적용하여 내습기능과 방연기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고 산화철 광물성 안료가 목재 부후균의 성장을 저지하는 효과를 밝힌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산화철은 조성과 구조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뉘어지는데 Fe₂O₃계는 적색을 나타낸다. 나노기술은 입자를 나노화시켜 비표면적을 넓게하여 접착력이나 내구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섬유산업에서 나노기술의 적용은 고부가가치 섬유제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Fe₂O₃ 나노파티클 용액으로 염색된 견직물의 염색 특성과 기능성을 조사하고자한다.

견직물(ISO 105-F06)을 이용하여 0.5g/L, 5g/L 및 50g/L 농도의 Fe₂O₃ 나노 용액에 1:50의 액비로 염색하였다. 염색조건에 따른 색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시간을 10, 20, 30, 40분, 온도는 20, 40, 60℃로 변화시켰다. 염색은 IR 염색기에서 시행되었으며 색상 특성은 색차계(Color reader JS-555, Japan)를 사용하여 관찰되었다. 또한, 매염에 따른 색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NaCl과 Acetic acid를 매염제로 사용하였다. 1% NaCl 및 5% NaCl, 1% Acetic acid 및 5% Acetic acid, NaCl 1% + Acetic acid 1% 및 5% NaCl + 5% Acetic acid으로 각각 실시되었다. 최적의 조건에서 염색된 직물은 20, 40, 60, 100분 동안 UV-A를 조사하여 일광견뢰도를 평가하였다.

산화철나노파티클을 이용한 염색결과 모든 조건에서 붉은 계열로 나타났다. 50g/L의 농도로 60℃에서 40분동안 염색했을 때 염착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a*값이 가장 높았으므로 붉은색을 얻기 위한 최적의 조건으로 판단된다. 소금과 초산을 첨가하여 50g/L의 농도로 60℃에서 40분동안 염색할 경우 초산을 단독으로 1% 첨가했을 때 가장 염착량이 높았고 1% NaCl, + 1% Acetic acid를 첨가했을 때 그 다음으로 염착량이 높았다. 이는 pH가 염색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나노파티클50g/L의 농도로 60℃에서 40분동안 염색한 실크와 1% Acetic acid를 첨가하여 염색한 실크직물에 UV를 조사하고 ΔE값을 측정한 결과 200분 조사했을 때 ΔE값이 1.5 이하로 나타나 일광견뢰도가 좋게 나타났다. 홍화로 염색된 붉은 계열의 견직물과 비교하면 홍화염색된 견직물은 ΔE값이 6.5로 나타나는 것을 보아 나노파티클로 염색된 붉은계열 견직물은 일광견뢰도가 매우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목재염색에 사용되고 있는 산화철을 나노화하여 입자를 줄인 산화철 나노파티클을 이용하여 염색성을 평가하였다. 50g/L의 농도로 60℃에서 40분동안염색했을 때 염착량과 a*값이 가장 높았다. 1% Acetic acid를 첨가할 경우 염착량과 붉은 기미가 높아졌는데 이는 pH가 염색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광견뢰도를 평가했을 때 같은 붉은 계열인 홍화로 염색된 실크보다 1% Acetic acid와 함께 나노파티클로 염색된 실크 염직물의 일광견뢰도가 좋아 붉은 색을 잘 유지했다.

향후 후속연구로 산화철 나노파티클(Fe₂O₃)를 이용한 염색성 뿐만 아니라 항균성, 전자파 차폐, 소취성, 냉감효과와 같은 기능성에 관한 연구가 추가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이 논문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

남녀 대학생의 패션제품에 대한 지속가능소비행동 연구

A Study on the Sustainable Consumption Behaviors of Fashion Products of University Students

이미숙

공주대학교 의류상품학과 교수

Mi Sook Lee

Dept. of Fashion Design & Merchandi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의 패션제품에 대한 지속가능 소비행동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피험자는 남녀 대학생으로 편의표집방법에 의해 선정되었다. 연구방법은 설문지법이며, 측정도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패션제품의 구매, 사용, 처분에 대한 지속가능 소비행동, 지속가능한 패션브랜드와 중고 패션제품 구매행동, 피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료분석방법으로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신뢰도분석, 요인 분석 t-test 교차분석 등이 실시되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제품의 지속가능 구매행동을 요인분석한 결과, 지속가능고려 구매행동과 충동구매 자제행동의 2요인이 도출되었다. 대학생들은 충동구매 자제행동은 중간 이상의 수준을 보였으나, 지속가능고려 구매행동의 수준은 아직까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패션제품의 지속가능 사용행동을 요인분석한 결과, 보관, 관리 세탁행동의 3요인이 도출되었다. 대학생들은 3요인 모두에서 중간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세탁행동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보관행동, 관리행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패션제품의 지속가능 처분행동을 요인분석한 결과, 재사용행동, 기부행동, 폐기행동의 3요인이 도출되었다. 대학생들은 폐기행동에서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경향을 비교적 높게 나타냈으나, 기부행동과 재사용행동은 중간 이하의 낮은 수준을 보였다. 넷째, 지속가능한 패션브랜드 구매행동을 조사한 결과, 구매경험은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앞으로의 구매의도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속가능한 패션제품의 구매품목으로는 티셔츠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방이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지속가능한 패션제품의 선택기준으로는 디자인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고 그 다음으로 가격, 품질, 브랜드의 신뢰도, 소재의 순으로 나타났다. 알고 있는 지속가능 패션브랜드로는 프라이탁과 파타고니아가 대표적이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패션제품과 브랜드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중고 패션제품 구매행동을 조사한 결과, 구매경험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약 2/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구매의도 또한 중간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구매품목으로는 티셔츠류와 점퍼/자켓이 높은 비중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바지/스커트, 신발, 가방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고 패션제품의 선택기준으로는 디자인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품질, 회소성, 가격, 소유한 옷과의 조화, 소재의 순이었다. 중고 패션제품 구매시 지각하는 위험으로는 제품의 위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낮은 품질, 사이즈와 피팅 문제, 교환/환불의 어려움, 사기, 제한적인 디자인, 타인의 시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남녀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지속가능고려 구매행동과 재사용 처분행동은 여자가 남자보다, 관리행동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속가능한 패션브랜드와 중고 패션제품 구매행동에서는 여자는 의류를, 남자는 가방과 신발을 많이 구매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구매의도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매, 사용, 처분행동의 의생활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소비행동의 실태를 알아보고, 지속가능 패션브랜드와 중고 패션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구매행동을 조사함으로써, 패션제품의 지속가능한 소비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비숙련자 여성의 스쿼트 자세 보조용 레깅스 디자인 Leggings design to assist squat posture for unskilled women

강준모 • 이예진*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석사과정,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Kang, Junmo • Lee, Yejin*

Department of Clothing &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스쿼트는 근력, 근 비대, 근 파워 증진 등에 매우 효과적인 대중 운동이지만(Schoenfeld, 2010), 비숙련자의 잘못된 동작은 다양한 하지의 상해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이들은 스쿼트 동작 시 숙련자에 비해 과한 무릎 외반이 발생한다고 보고되었다(박상호 외, 2010). 이에, 본 연구는 스쿼트를 시작하는 20대 여성이 동적 무릎 외반으로 인한 상해 위험이 감소되도록 고관절과 무릎관절의 외회전을 보조하는 기능적인 레깅스를 디자인하였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레깅스 디자인은 고관절과 무릎관절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근육과 당기는 힘인 장력에 근거하여 2종(MD, TD)을 제안하였다. 기본 패턴은 사이즈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8차 20대 여성의 평균 치수에 적합하도록 설계하고, 패턴의 폭을 90%로 축소하였으며, 소재는 NY 85%, PU 15%이었다. 피험자 10명은 실험용 레깅스를 착용한 후 무릎 중앙에 마커를 부착하고, 미국 스포츠 의학 아카데미의 실시간 동작 평가법(NASM, 2011)을 참고하여 오버헤드 스쿼트를 10회 실시하였다. 이때, 피험자의 동의하에 동영상을 촬영하여 분석하였다. 즉, 통제 변인 레깅스 1종(CD)과 디자인 레깅스(MD, TD) 2종, 총 3종 착용 시 무릎 최대한 편 시점~무릎 약 90°로 굽힌 시점 사이 10구간에서 무릎 사이의 수평 거리 수치를 추출하여 SPSS 26.0으로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고, Duncan-test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디자인 MD는 하지 관절의 벌림과 외전 시 주동근으로 사용되는 장요근에서 시작하여 반대편 대둔근, 봉공근의 넓다리 바깥쪽, 무릎 안쪽, 전경골근을 지나 발목이 감싸지도록 하였다. 반면, 디자인 TD는 옆허리에서 시작하여 장골, 넓다리 안쪽, 무릎 바깥쪽, 비복근을 지나 발목이 감싸지도록 하였다. 2종 모두 발목은 두 번 감싸졌고, 벨크로에 의해 의복압 조절이 가능하였다. 장력에 의해 당겨지는 라인은 폭 5cm의 E-밴드(인장강도 1300N/5cm, 인장신도 292.5%)를 이용하여 원길이에 70%가 되도록 적용하였고, 발바닥 고리가 고정 역할을 하였다. 한편, 레깅스 3종 착용 후 선 자세에서 무릎 사이 수평 거리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스쿼트 동작 시 무릎 약 90°가 되었을 때, MD가 무릎이 가장 안으로 움직였고, TD가 무릎이 가장 밖으로 움직였다. 또한, TD는 동작 동안 무릎 사이 수평 거리가 거의 동일하였을 뿐만 아니라, 뒤 허리와 발목을 지지해 척주의 바른 자세 유지에도 효과적이라고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비숙련자는 운동 방향을 고려하여 근육 형상과 장력 조합으로 디자인된 레깅스를 착용하면, 스쿼트 시 무릎이 바깥으로 회전되면서 허리와 발목 안정성이 확보되어 보조 기능성 의류로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추후 장력을 주는 매개체로 E-밴드에서 나아가 소재 수축률, 레이어링 등 다양한 변화를 통해 고관절과 무릎관절의 보다 효과적 움직임과 함께 착·탈의도 편안한 최적화 디자인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박상호, 조준행, 최동성, 이해동, 이성철(2010). 스쿼트 동작 시 숙련도와 바벨 무게에 따른 운동학적 분석. *체육연구논문집*. 17(1), 45-55.

Brad J. Schoenfeld(2010). squatting kinematics and kinetics and their application to exercise performance. *Journal of Strength Conditioning Research*, 24(12): 3497-3506

National Academy of Sports Medicine.(2011). NASM Essentials of corrective exercise training.

*교신저자: yejin@cnu.ac.kr

밀착 발목 보호대의 패턴 축소에 따른 발목 지지 효과 연구

A study on the ankle support effect of ankle protector depending on the pattern reduction

민경의* • 류다미 • 김세현¹⁾ • 김태은¹⁾ • 이희란^{2)*}

금오공과대학교 소재디자인공학과 석사과정, ¹⁾금오공과대학교 소재디자인공학과 학부과정,

²⁾금오공과대학교 소재디자인공학과 조교수

Min, Gyeong-ui* • Ryu, Dami • Kim, Sehyeon • Kim, Taeun • Lee, Heeran

Department of Materials Design Engineering,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발목 염좌는 고르지 못한 지면, 바위 위, 구부진 등성이 등을 걷거나 달릴 때 쉽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하이힐과 같은 불안정한 신발을 신거나 이전에 발목 염좌 경험이 있는 경우 쉽게 재발할 수 있다. 또한, 빈번한 발목 염좌 또는 부적절한 치료 등에 의해 발목의 만성 염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목 지지를 통해 발목이 꺾이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시판되고 있는 밀착형 발목 보호대 중 편의성을 중시한 보호대는 대부분 압박을 통한 발목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의복압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발목에 가하는 적정 수준인 2.1~2.7 kPa을 유지할 경우 정맥 박출량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킬 수 있으나 압박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근육 피로와 혈류순환 장애, 신체 내 장기의 위치 변형, 혈류량 감소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정 수준의 의복압을 유지하는 압박 발목 보호대가 필요하나 이는 부목, 지지대, 깁스 등으로 발목을 지지하는 것보다 지지력이 매우 약한 단점이 있다. 그러나 압력으로 지지하는 발목 보호대 중 어느 정도의 압력이 어느 정도까지 발목을 지지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패턴 분할 및 축소율, 축소 방향에 따른 지지정도 차이에 관한 연구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목 보호대의 패턴을 부위별로 분할 축소한 후 의복압과 발목 안쪽 변짐의 각도 측정을 통해 적정 의복압 내에서 발목지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발목 보호대를 개발하고자 한다. 압박형 발목 보호대를 개발하기 위해 사이즈코리아 20~30대 여성 평균 발, 발목에 해당하는 대표 피험자의 발 석고 형상을 제작하였다. 발목 보호대 패턴은 발 석고 형상을 Artec EVA 스캐너(3D Systems, Inc., Korea)를 이용하여 3차원 스캔한 후 Geomagic Design X(3D Systems, Inc., Korea)프로그램의 3D 메쉬 스케치 기능을 활용하여 패턴의 외곽 라인을 디자인하고 부위별 패턴을 분할한 후 3차원 데이터를 2차원으로 전개하여 설계하였다. 패턴 분할은 발과 발목의 피부 변화량을 근거로 발의 외측과 내측, 발등과 발바닥으로 분할하였다. 패턴의 축소는 피부가 늘어나는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각각의 패턴 축소 방향을 설정하였다. 발목 보호대의 소재는 유연하면서 신축성과 탄력성이 있는 네오프렌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패턴에 소재의 축소율을 반영하기 위해 Ziegert & Keil 방법으로 소재의 신장률을 측정하였다. 변인은 소재 신장률의 80 %, 120 %, 160 %, 200 %를 반영하여 축소율을 선정하였다. 이때 분할 패턴의 발의 외측과 내측은 발목의 안쪽 변짐을 예방하기 위해 식서 방향으로, 발바닥과 발등은 푸서 방향으로 축소하여 발목 보호대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발목 보호대의 발목 지지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변인별 발목 보호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의복압과 발목의 안쪽 변짐의 최대 각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축소율 200%인 경우 의복압이 가장 높기는 하였으나 발목의 안쪽 변짐의 최대 각도가 가장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축소율이 큰 경우 의복압이 압박 적정 수준인 2.7 kPa을 넘기 때문에 지속적인 착용을 위해서는 적정 압박범위에 해당하는 120 % 또는 160 %를 반영한 보호대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개발된 보호대는 압박에 의한 불편함 없이 발목 지지에 효과적이므로 만성 염좌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Corresponding author: Heeran Lee (heeran@kumoh.ac.kr).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SIT) (NRF-2023R1A2C2005376).

한복 펀딩 프로젝트 ‘본디’(BON-D)’를 통한 생활 한복의 상품화 및 창업 프로젝트의 결과 분석

Analysis of the results of the commercialization and start-up project of daily hanbok through the funding project ‘BON-D’

김다혜* • 엄혜정

전북대학교 의류학과 학사과정*, 전북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Kim, Dahye* • Yum, Haejung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1. 서론

크라우드 펀딩이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아이디어, 상품, 서비스 등의 사업 및 프로젝트를 공개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이다. 국내에서는 2011년 텀블벅(tumblbug) 서비스를 시작으로 펀딩이 활성화되었다. 크라우드 펀딩의 종류 중 가장 주목을 받는 유형인 보상형은 창작자가 후원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리워드로 지급하여 자금을 공급받는 형식이다. 펀딩 플랫폼인 텀블벅의 인기 검색어 중 한복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해보면 2020-2021년에 한복 펀딩 프로젝트가 급증하였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현대 한복 홈웨어를 펀딩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따를 것이라 판단하여, 2022년에 본인을 포함한 2명의 패션전공자가 창업한 ‘본디(BON-D)’라는 브랜드로 한복 홈웨어를 펀딩했다. 그 결과 성공률 744%, 22,329,000원을 기록했다. 한복 홈웨어 외에도 땀기 스크런치, 땀기 책갈피, 스트릿 한복 등을 판매하여 각각 펀딩 성공률 632%, 260%, 452%를 달성하였다.

2. 연구 목적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22년 직접 진행했던 한복 프로젝트의 결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복 펀딩의 후원자들의 지역별, 성별, 나이대별 등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선행 연구에서 펀딩에 가장 활발한 참여를 보였던 20대가 이번 연구에서도 일치하는지, 그 특성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펀딩 플랫폼의 마케팅 및 디자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했다.

3. 연구 방법 및 결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프로젝트에는 총 504명이 참여했다. 지역별 분석 결과, 가장 많은 후원자가 나온 곳은 서울, 경기지역으로 129명(25%)이었으며, 그 다음은 인천과 충청북도가 각각 29명(6%)으로 동일했다. 인천에 비해 낮은 인구수를 보유한 충청북도가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주목해 볼 만하다. 다음으로 성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수치를 차지했는데, 평균 86%이었다. 마지막으로 후원 유입경로를 분석한 결과, 외부/직접 유입을 통한 후원이 평균 46%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알림을 통한 후원이 약 20%를 기록했다.

4. 결론

최근 사회 문화적으로 한국의 전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패션에 있어서도 한복에서 이미지를 얻은 사례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한복 관련 펀딩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구체적인 마케팅 및 디자인 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 효과를 지닌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경기, 서울, 인천과 같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충청북도 지역, 남성보다는 여성, 그리고 연령으로는 20대에 대해 더욱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외부/직접 유입 중 ‘트위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SNS 마케팅 방법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다듬이질’이 생견직물의 강연성과 드레이프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Dadeumijil’ on the stiffness and drapability of raw silk fabrics

전채원* • 이정순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석사과정*,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Jeon, Chaewon* • Lee, Jungsoon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견섬유는 인류 역사상 오래된 동물성 천연섬유 중 하나로 오래전부터 고급 소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다양한 합성소재가 등장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고급 소재로 사용이 되고 있다. 견섬유는 특유의 아름다움과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생사는 두가닥의 피브로인이 세리신으로 덮여있는 구조로, 거칠고 딱딱한 느낌을 준다. 따라서 경단백질인 세리신을 비누나 묽은 알칼리 용액과 가열하여 용해해서 부드럽고 우아한 광택을 가진 견섬유를 얻게 된다. 그러나 단백질인 견섬유는 알칼리에 약하기 때문에 세리신 제거 과정에서 섬유가 손상될 수 있고, 피브로인만 남은 견섬유는 내마찰성, 내일광성, 내산성, 내알칼리성 등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 따라서 화학적인 세리신 제거 방법이 아닌, 물리적인 다듬이질 가공을 통하여 세리신을 제거하지 않고 견직물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다듬이질은 전통적인 옷감을 손질하는 방법으로 다듬잇돌 위에 옷감을 놓고 방망이로 두드려 다듬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최근에는 사라지고 있으나, 기계적인 다듬이질 가공을 통하여 번거로운 단점을 보완하였으며, 미정련 견직물의 다듬이질에 따른 강연성과 드레이프성의 향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미정련된 생사 견직물로 경사는 21denier 2합사, 위사는 21denier 6합사를 사용하였다. 경사 밀도는 inch당 120올로 고정하고, 위사 밀도를 inch당 65올, 75올, 85올, 95올로 변화하여 재직한 4종류의 직물을 사용하였다. 다듬이질 가공은 (주)남양염직에서 제작한 다듬이질 가공기를 사용하였으며, 다듬이질 가공기는 12개의 방망이로 원형 롤러에 감긴 시료를 일정한 속도로 두드린다. 다듬이질은 1회에 30분간 다듬이질하였으며, 1회부터 3회까지 다듬이질하여 원포와 함께 비교하였다. 다듬이질 전과 후의 시료는 KS K ISO 5084에 의하여 두께를 측정하였으며, KS K ISO 9073-7에 의하여 굽힘 길이와 휨 감성 $G(mN \cdot cm)$ 을 측정하였다. 드레이프성은 KS K ISO 9073-9에 따라 이미지 분석 기술을 사용하여 드레이프 계수를 측정하였다. 드레이프성은 드레이프 계수 D_{30} 이 85% 이상이기 때문에 지름 36cm 시험편으로 진행하였다.

두께는 다듬이질 0회 시료의 경우 평균 0.19mm, 다듬이질 1회 시료의 경우 0.15mm, 다듬이질 2회 시료의 경우 0.15mm, 다듬이질 3회 시료의 경우 0.14mm로 다듬이질 1회 이후 두께가 확연하게 얇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굽힘길이는 다듬이질 0회 시료의 경우 13.5cm, 다듬이질 1회 시료의 경우 12.09cm, 다듬이질 2회 시료의 경우 11.09cm, 다듬이질 3회 시료의 경우 11.06cm로 굽힘길이가 줄었다. 휨감성은 다듬이질 0회 시료의 경우 24.14G, 다듬이질 1회 시료의 경우 17.33G, 다듬이질 2회 시료의 경우 13.37G, 다듬이질 3회 시료의 경우 13.28G로 휨감성 또한 줄어들어 유연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드레이프성은 다듬이질 0회 시료의 경우 58%, 다듬이질 1회 시료의 경우 47%, 다듬이질 2회 시료의 경우 44%, 다듬이질 3회 시료의 경우 42%로 드레이프 계수가 감소였다. 드레이프 계수가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드(node) 수 또한 다듬이질 전 2개에서 다듬이질 후 5개로 수가 증가하였으므로 드레이프성이 좋아졌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다듬이질을 통하여 강연성과 드레이프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1회 다듬이질만으로 충분한 강연성과 드레이프성의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22M3C1C5A02094018)

대전 YWCA에 접수된 의류제품 불만 사례 분석: 2019년~2022년에 진행한 심의 사례

Analysis of garments complaints filed with Daejeon YWCA: Review cases conducted during 2019~2022

전채원*¹⁾ • 강다예²⁾ • 김혜진¹⁾ • 신미기¹⁾ • 이정순³⁾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석사과정¹⁾,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²⁾,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³⁾

Jeon, Chaewon* • Kang, Dayae • Kim, Hyejin • Shen, Meiqi • Lee, Jungsoon
Department of Clothing &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섬유 소재의 다양화, 전문세탁소의 이용에 따른 의복 관리의 사회화, 의류 소재의 관리 특성을 무시한 제조업체의 의복생산 등은 소비자가 의복을 착용, 세탁 및 보관하는 의류 관리 행동 중 불만의 원인이 되어 소비자 단체에 심의를 요구하게 된다. 1981년~1990년까지 심의자료에서 불만 유형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색상변화였고 파손, 형태 변화 등의 순이었다. 1998년~2001년까지 심의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탈색과 변색, 모양 변형, 울 풀림과 미어짐이 큰 불만 유형이었으며, 책임소재는 소비자 과실은 줄어들고 세탁업자와 제조업체의 책임 비율은 증가하였다. 1997년에서 2009년까지 심의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과실 책임은 제조업체 과실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1년에서 2013년까지의 심의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불만 유형이 색 변화, 표면 및 촉감 변화, 형태변형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고, 소비자보다는 세탁업자와 제조업체의 책임이 높게 나타났다. 2016년~2018년까지의 심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탈색, 변색, 이염 등 색상변화와 관련한 항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고 내구성과 형태변형도 불만 유형으로 보고하였다. 이렇듯 의복의 소재와 가공 방법이 다양화되면서 사고유형과 책임소재가 함께 변화하므로 의류 관리 행동 중 발생하는 불만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것은 소비자와 세탁업자에게는 올바른 의류 관리 행동을 제조업자에게는 의류제품의 품질 향상 노력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9년~2022년까지 대전 YWCA에 접수되어 심의를 진행한 의류제품 불만 사례를 분석하여 의류의 관리 및 착용 과정 전반에서의 사고 발생 경향과 원인을 파악해서 관련된 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 불만 사례 건수는 소비자 분쟁 심의를 거친 총 425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쟁 심의 접수 시기, 소비자분쟁 의류제품의 종류, 의류제품의 분쟁 심의 발생 유형, 분쟁 과실 책임소재 등이 분석되었다.

심의 접수 사례의 계절별 분포 특성을 살펴본 결과 여름과 겨울보다 봄, 가을에 접수된 심의 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별 분포 특성을 보면 11월에 59건, 12월 64건으로 약 전체의 30%가 11월과 12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 접수자 빈도가 세탁업자가 높은 것을 고려해 보면 물세탁보다 드라이클리닝으로 발생한 분쟁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며, 그대로 방치 후 계절이 전환될 때 보관 전에 세탁하는 유형보다는 착용 후 즉시 하는 유형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의류제품의 불만 유형은 파손이 112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지금까지 높은 불만 유형이었던 탈색, 변색과 같은 색상변화를 앞섰다. 이는 얇고 가벼운 경량화 소재의 등장으로 의류 소재가 약해진 결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의류제품의 분쟁 과실 책임소재에서 제조업자의 과실은 201건에서 89건으로 책임이 이전보다 감소하였는데 주로 제조업자의 책임이었던 탈색 변색과 같은 색상변화에 대한 품질이 향상되어 이에 대한 불만 유형이 줄어든 것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동 책임을 포함한 소비자의 과실이 100건으로 정상 제품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책임소재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능성 의류와 같이 새로 개발되는 의류 소재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새롭게 개발되는 의류 소재의 관리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케어라벨을 의복에 부착하는 제조업자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소비자의 한복 소비 실태 분석

Analysis of the Consumption Status of Hanbok by Consumers

서서영* • 전채원¹⁾ • 이정순²⁾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연구교수, ,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석사과정¹⁾,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²⁾

Suh, Seoyoung* • Jeon, Chawon¹⁾ • Lee, Jungsoon²⁾

Department of Clothing &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한복은 지속적으로 계승 및 발전해 나가야 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이다. 일상의 복장이 서구화되면서 활동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착용하지 않던 한복이 최근 젊은 세대들에게는 놀이문화, 힙한 문화로 받아들여져 관심과 착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한복 착용은 우리의 일상과 거리가 먼 의복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한복을 지속적으로 계승 및 발전해나가기 위해서 한복 착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복 착용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로서 소비자들의 한복에 대한 소비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설문지를 사용하여 20~50대 여성을 대상으로 2023년 1월에 온라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총 332부가 본 연구의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에 사용된 문항과 자유기술로 도출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예비조사하여 수정 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분석에는 SPSS 26.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복의 구매 경험이 있는 279명의 응답지로 분석한 결과, 최근에 구매한 한복 종류는 전통한복(65.9%)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생활한복(23.3%), 신한복(10.8%)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복 구매 용도는 대부분 행사복과 예복(83.2%)으로 착용하기 위해서 구매하였고, 그 외는 평상복, 문화체험, 외출복 등으로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복을 구매한 시기는 1년 이상~3년 미만(23.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복 구매가 10년 이상(22.6%) 지난 소비자도 높게 나타났다. 이제까지 구매한 한복 수는 1벌(34.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2벌, 3벌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여 경험이 있는 249명의 응답지로 분석한 결과, 최근 대여한 한복 종류는 전통한복(73.9%)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신한복(17.3%), 생활한복(8.8%)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여한 한복의 용도는 행사복과 예복(67.9%)이 높게 나타났고, 문화체험(30.9%)을 위한 대여도 높게 나타났다. 최근 한복을 대여한 시기는 1년 이상~3년 미만(30.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제까지 대여한 한복 수는 1벌(46.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2벌, 3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한복 착용 경험에 대해 332명의 응답지로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착용해 본 한복 종류는 전통한복(48.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통한복과 생활한복(22.3%), 전통한복과 신한복(12.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복을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232명이며, 그중 한복 소유 개수는 1벌(58.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2벌(27.1%), 3벌(10.8%)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한복 착용 빈도는 1년 이내에 1회 이상 한복을 착용한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95명(28.6%)이며, 그중 1회(53.7%)와 2회(26.3%)의 착용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1년 이내에 한복을 착용하지 않은 소비자 237명(71.4%)은 몇 년에 한 번 착용하는지에 대한 응답에서 5년 이상(66.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소비자는 전통한복을 가장 많이 구매 및 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통한복이 가장 많이 착용되고 있는 한복 종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신한복보다 생활한복을 더 많이 구매하고 생활한복보다 신한복을 더 많이 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복 착용 용도는 주로 행사복과 예복으로 착용되고 있으며, 문화체험을 위해서는 구매보다는 대여한 한복을 주로 착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복 착용 빈도에서 한복을 착용한 지 5년 이상이 지난 소비자가 가장 높게 분포하여 소비자들은 한복을 거의 착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 논문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22M3C1C5A02094018).

한복에 대한 인식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Hanbok Perception on Consumer Behavior

서서영* • 강다예¹⁾ • 이정순²⁾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연구교수,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¹⁾,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²⁾

Suh, Seoyoung* • Kang, Dayae¹⁾ • Lee, Jungsoon²⁾

Department of Clothing &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최근 한복을 착용하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거나 여행하는 사진을 찍어 SNS를 통해 공유하는 문화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전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전통문화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도 이러한 현상에 동참하고 있다. 한복에 대한 인식이 한복의 선호도와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연구되고 있으나 한복의 체험의도나 홍보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복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체험의도와 홍보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복에 대한 인식이 소비자 행동의 중요한 요소인 체험의도, 홍보효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설문지를 사용하여 20~50대 여성을 대상으로 2023년 1월에 온라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총 332부가 본 연구의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에 사용된 문항과 자유기술로 도출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예비조사하여 수정 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분석에는 SPSS 26.0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의 한복에 대한 인식을 요인 분석한 결과, 전통성, 발전가능성, 외모적합성의 3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둘째, 한복 체험의도를 구성하는 문항에서 '한복 착용을 통해 재밌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싶다'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복에 대한 인식이 소비자의 체험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인식의 3요인이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성 요인이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으로 외모적합성, 발전가능성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복의 홍보효과를 구성하는 문항에서 'K-pop 스타들의 한복 착용을 통해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복의 인식에 따른 홍보효과를 분석한 결과, 인식의 3요인이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복의 홍보효과에는 전통성 요인이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으로 발전가능성, 외모적합성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복 구매의도를 구성하는 문항에서 '한복을 응용한 상품을 갖고 싶다'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복에 대한 인식이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인식의 3요인이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의도에는 한복의 발전가능성 요인이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으로 외모적합성, 전통성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한복활성화를 위한 한복 착용의 체험, 홍보효과, 구매 등의 소비자 행동을 높이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한복에 대한 전통성, 발전가능성, 외모적합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한복 착용의 체험과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복의 전통성을 강조하고, 구매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복의 발전가능성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 논문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22M3C1C5A02094018).

수치해석을 이용한 전신 보호복 착용 시 열적 스트레스 예측

Prediction of Thermal Stress for Protective Clothing Using CFD

박소영 • 이예진†

충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Park, Soyoun • Lee, Yejin†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전신 보호복은 농업용, 산업용, 방호용, 건설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착용되고 있으며, 중대 재해법이 실행되면서 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전신 보호복은 보호와 동시에 체온과 발한의 발산까지 막는 장벽을 만들어 장시간 착용 시 심각한 열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따라서 열적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의 측정은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밀폐된 의복 공간 안에서 피부온 변화, 환기 시스템의 효과 등이 시도되고 있다(Zhang & Jia, 2021). 하지만 해석 자체로 그치고 실제 실험과 비교까지 진행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신 보호복 C등급 착용 시 냉각 조건에 따른 환경·의복·신체조건 변화를 해석하고, 실제 실험 수치와 비교하여 수치해석의 효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수치해석은 전신 보호복과 냉각 조건 결합 시 열적 스트레스 관련 요소의 변화를 3가지 Case로 살펴보았다. Case1은 통제 변인 전신 보호복이었고, Case2는 전신 보호복+냉각제였으며, Case3은 전신 보호복+냉각제+팬이었다. 수치해석 시 아바타는 3D 가상착의 프로그램에서 제 8차 사이즈 코리아 20대 평균으로 적용하여 변경하였고, 전신 보호복은 판매되는 제품의 봉제선을 해체하여 패턴 획득 후 3D 가상착의 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유체 해석을 위한 3D 모델링으로 전환은 Ansys spaceclaim(ansys, Inc., USA)을 이용하여 생성하였고, 해석을 위한 격자는 Ansys fluent meshing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최종 수치해석은 Ansys fluent와 CFD-pos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이때, 경계조건은 정상 해석으로 압력 기반 솔버를 사용하여 케이-엡실론 난류 모델로 설정하였다. 해석방법은 복합 열전달이었고, 해석 시 처리하는 기법은 결합 및 준과도로 하였으며, 중력가속도를 입력하여 자연대류 현상이 발생하도록 설정하였다. 단, 습도 조건은 배제하였고, 열전달만 고려하여 수행하였다.

수치해석 결과, 전신 보호복의 평균 표면온도는 Case1: 30.9℃, Case2: 29.8℃, Case3: 28.8℃로 Case1이 가장 높았다. 평균 피부온은 Case1, 2, 3 각각 33.0℃, 30.5℃, 30.3℃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Case1은 하체보다는 상체의 피부온이 높은 경향이였다. Case2는 냉각제가 등 부위에 있었으나, Case 1과 유사하게 하체의 온도가 낮고, 상체가 높았다. 반면, Case3은 냉각제와 팬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피부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전신 보호복과 신체 사이의 유체 흐름을 나타낸 속도벡터는 Case1: 0.224615m/s, Case2: 0.222767m/s, Case3: 2.373651m/s로 Case3이 머리와 상체에서 흐름이 빨랐다. 결론적으로 수치해석은 실제 실험 수치와는 동일하지 않지만, 같은 경향을 보여 보정계수를 이용하면 활용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보다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들어오고 나가는 공기 양을 같게 하고, 개구부를 통해 열이 배출되도록 하며, 습도 조건을 설정하여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Zhang, Y., & Jia, J. (2021). Numerical investigation of heat transfer in garment air gap. AUTEX Research Journal, 22(1), 89-95. doi: 10.2478/aut-2020-0055

사사: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NRF-2022R1A2C2006369)

† 교신저자: Yejin Lee (yejin@cnu.ac.kr)

패션 브랜드 아트 스쿨 작품에 표현된 젠더퀴어

Gender Queer Expressed in Fashion Brand Art School Works

김선영*

국립순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Kim, Sunyoung*

Dept. of Fashion Design,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오늘날 개인의 다양한 취향과 개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성 정체성 표현 또한 남성과 여성이라는 획일적 구분을 탈피하여 많은 변화가 전개되고 있다. 특히 LGBTQIA+ 같은 다양한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포용은 패션 영역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디자이너나 브랜드의 정체성을 대표함은 물론 독창적인 패션 창조의 도구로 활용된다. 보그 인터내셔널 에디터 수지 멘키스(Suzy Menkes)는 오늘날 패션에서 주목되는 변화 중 하나는 성별에 따른 획일화된 옷차림이나 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이나 체형, 성적 취향에 따라 패션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였고(Vogue, 2022), 세계 패션 위크에서도 논 바이너리(non-binary) 영역이 추가되거나 남성복과 여성복 컬렉션이 통합되는 등 젠더 표현의 자유와 유동성이 패션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 이를 대표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 아트 스쿨(Art School)은 듀오 디자이너 이든 로웨스(Eden Loweth)와 톰 바랏트(Tom Barratt)가 이끄는 패션 브랜드로 럭셔리 패션 영역에서 현대 사회의 젠더퀴어를 탐구하는 의사소통 도구로 사용한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Conroy, 2021), 다양한 성소수자를 포괄하는 논 바이너리 패션 영역을 선도하며 개성적인 패션 미학을 전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패션 브랜드 아트 스쿨의 작품을 분석하고 젠더퀴어의 표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성 정체성을 포괄하는 현대 패션의 흐름을 이해하고, 젠더 다양성 측면에서 논 바이너리 패션을 탐구하는 패션 브랜드의 표현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연구 내용과 방법은, 첫째,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 각종 패션 매체를 기반으로 젠더퀴어에 대한 고찰, 패션 브랜드 아트 스쿨 디자이너의 이력과 패션 정체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사례연구는 패션 브랜드 아트 스쿨의 작품 분석으로 세계 무대에서 작품을 발표한 2017년부터 최근 작품인 2022년까지를 범위로 젠더퀴어의 표현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젠더퀴어는 아트스쿨을 대표하는 패션 정체성으로 이들의 패션 작품은 젠더를 초월하여 자기표현을 기념하는 방식을 취하며, 트랜스젠더나 드래그 퀴인을 비롯해 다양한 젠더퀴어 성향의 일반인 모델 활용으로 모든 유형의 젠더를 포용하고 소통을 모색하였다. 둘째, 퀴어 신체에 적합한 소재와 디자인 모색을 목표로 장인정신 기반의 수공예 기법, 테일러링과 드레이핑, 오버사이즈 실루엣, 비대칭 컷, 지속 가능한 소재 활용, 크로스 드레싱 연출, 기괴한 메이크업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셋째, 컬렉션을 젠더퀴어의 모든 형식을 기념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면서 퀴어 아티스트와 협업하여 퍼포먼스 요소를 반영하였고, 다양한 문화와 예술에서 얻은 영감을 패션과 융합하여 퀴어 감성으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아트 스쿨의 행보는 다양한 젠더 유형은 물론 서로 다른 체형이나 장애 등 모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패션 표현이자 태도이며, 젠더 초월을 통해 자기표현의 경계 확장을 모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참고문헌

- 가) Conroy, V. (2021). Eden Loweth on Art School's New Chapter. Showstudio. Retrieved from <https://cutt.ly/KwRIxMUj>.
- Vogue. (2022). Generation Gender Neutral. Vogue. Retrieved from <https://bit.ly/3LrSucq>.

웨어러블 기기의 물리적 특성이 제품의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mpact of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Wearable Devices on the Perceived Value of the Product

유희정^{1*} • 심수인²

¹전북대학교 생활과학과 박사과정, ²전북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전북대학교 인간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Yu, Heejeong^{1*} • Shim, Soo In²

¹Department of Human Ecolog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²Department of Fashion Design, Jeonbuk National University/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최근 소비자들은 자기관리를 위해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과 연동성이 좋고 다양한 기능, 디자인을 제공하는 스마트워치와 간편하게 착용하여 건강 관리를 위한 여러 자료를 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는 스마트밴드는 소비자들에게 가장 선호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다. 그러나 이들의 물리적 특성이 소비자가 지각하는 다양한 제품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단편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본 연구는 웨어러블 기기의 여러 물리적 특성 중 무엇이 소비자의 기능적, 심미적, 상징적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에 거주하는 소비자 중 웨어러블 기기를 실제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2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중 56.8%는 스마트밴드를 43.3%는 스마트워치를 사용해본 적 있다고 답했으며(복수응답), 들어본 적 있는 웨어러블 기기로는 스마트워치(90.0%), 스마트밴드(84.8%), 스마트안경(56.7%), 스마트의류(23.5%)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성별은 남성 39.4%, 여성 60.6%의 비율로 수집되었고, 연령대는 20-29세 26.0%, 30-39세 33.2%, 40-49세 19.0%, 50-59세 21.1%였다. 전문 조사연구 회사에 등록된 패널 중 무작위로 설문 초대 이메일을 배포하여 이에 수락한 응답자에게 설문지에 접근할 수 있는 url을 제공하는 식으로 자료를 수집했다. 설문지는 응답자의 웨어러블 기기 사용 경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웨어러블 기기의 다양한 물리적 특성(모양, 색상, 크기, 무게 등), 그 제품에 대해 지각하는 기능적, 심미적, 상징적 가치,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지각된 기능적, 심미적, 상징적 가치에 대한 척도는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를 활용하여 이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er.29를 이용하여 기술통계, 요인분석, 크론바흐알파 산출, t-test, MANOVA,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과 크론바흐알파를 산출한 결과, 기능적, 심미적, 상징적 가치를 측정한 문항들 각각 하나의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크론바흐알파도 0.7 이상으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웨어러블 기기의 다양한 물리적 특성을 측정한 독립변수가 유목형인 경우 t-test(2개 유목) 혹은 MANOVA(3개 이상 유목)을, 연속형인 경우 회귀분석을 사용했으며, 종속변수는 공통적으로 기능적, 심미적, 상징적 가치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제품 전면의 모양이 상징적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구체적으로 원과 정사각형은 직사각형보다 상징적 가치가 유의하게 높았다. 손목밴드의 소재 역시 상징적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구체적으로 금속과 가죽은 고무보다 상징적 가치가 유의하게 높았다. 제품의 크기도 상징적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크기가 클수록 상징적 가치가 높아지는 관계가 나타났다. 전면에 드러나는 여러 기능에 따라서도 지각된 가치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웨어러블 기기의 디자인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스마트워치의 물리적 특성이 지각된 맞춤새에 미치는 영향 : 기술수용모형의 확장

Effects of Smartwatch Physical Characteristics on Perceived Fit: Extension of Technology Acceptance Model

유희정^{1*} • 심수인²

¹전북대학교 생활과학과 박사과정, ²전북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전북대학교
인간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Yu, Heejeong^{1*} • Shim, Soo In²

¹Department of Human Ecolog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²Department of Fashion Design, Jeonbuk National University/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다양한 디자인의 스마트워치가 매년 출시되고 있지만, 성장세는 둔화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기술수용모형을 활용하여 스마트워치 물리적 특성에 따라 제품이 유용하거나, 사용하기 편리하다고 평가하는지 검토하였다. 그러나 스마트워치를 인체에 부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품이 인체에 잘 맞는지, 즉 지각된 맞춤새 역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기술수용모형에 지각된 맞춤새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런 측면이 그간 간과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수용모형을 구성하는 두 핵심요인,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에 더하여 지각된 맞춤새를 추가함으로써 기술수용모형을 확장하고, 스마트워치의 여러 외형적 특성이 소비자의 지각된 유용성, 사용용이성, 맞춤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스마트워치 사용경험이 있는 미국 거주자 125명이며, 이들은 성별, 연령별로 고루 분포하도록 전문 조사연구 기업에 의뢰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연구업체가 보유한 패널에게 설문 초대 이메일을 보내고 이에 수락하는 응답자에게 설문지 url을 제공하였다. 설문지에는 응답자의 스마트워치 사용 경험, 현재 사용 중인 스마트워치의 다양한 물리적 특성(모양, 색상, 소재, 크기, 무게, 기능 등), 그 제품에 대해 지각하는 유용성, 사용용이성, 맞춤새,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묻는 질문이 포함되었다. 지각된 유용성, 사용용이성에 대한 척도는 기술수용모형에서 개발된 척도를 활용하였고, 지각된 맞춤새는 여러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문항을 개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er.29를 이용하여 기술통계, 요인분석, 크론바흐알파 산출, t-test, MANOVA,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위해, 지각된 유용성, 사용용이성, 맞춤새 문항들을 3개 요인으로 도출하도록 요인분석했을 때 모든 문항이 단 하나의 요인에 0.5 이상 주적재되고 다른 요인에는 0.3 이하로 적재되어 수렴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단순요인구조가 도출되었다. 이들의 크론바흐알파도 모두 0.7 이상으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스마트워치의 다양한 물리적 특성을 측정한 독립변수가 유목형인 경우 t-test(2개 유목) 혹은 MANOVA(3개 이상 유목)을, 연속형인 경우 회귀분석을 사용했으며, 종속변수는 공통적으로 지각된 유용성, 사용용이성, 맞춤새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제품 전면의 모양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원형은 타원이나 직사각형보다 유용하다고 지각했다. 제품의 무게는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맞춤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무게가 가벼울수록 사용하기 쉽고 인체에 잘 맞는다고 지각했다. 제품 전면에 나타나는 기능으로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 지각된 유용성, 사용용이성, 맞춤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활동기록계 유무에 따라 사용용이성과 맞춤새 지각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알람, 캘린더 기능의 유무에 따라 유용성과 맞춤새 지각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 외 맞춤새 지각에 유의한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기능으로는 거리기록계, 전화, 소셜미디어 알림, 문자, 시계가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맞춤새 향상을 위한 스마트워치 디자인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논문(포스터)발표

식생활 분야

양배추즙을 첨가한 젤리의 품질특성 Quality Characteristics of Jelly with Cabbage Juice

따이샤샤^{1*} • 황선영¹ • 유현희^{2*}

¹군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석사과정

^{2*}군산대학교 식품생명과학부 식품영양학전공 교수

Sha Sha Dai¹ • Seon Yeong Hwang¹ • Hyeon Hee Yu^{2*}

¹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Kunsan National Univ.

^{2*}Professor, Major of Food and Nutrition, Kunsan National Univ.

식생활의 다양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기능성이 있는 식품으로 제조된 디저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디저트 중 젤리는 식감이 좋아 누구나 먹기 좋은 식품이며 특히 유아, 여성, 노인이나 환자에게 주목받고 있는 식품이다. 양배추(*Brassica oleracea* L.)의 원산지는 지중해 연안이며 십자화과의 채소로써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및 파이토케미컬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또한 양배추는 위궤양 예방 및 치료, 항염증, 항균, 항산화, 간 기능 개선 등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양배추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양배추즙 0%(대조군), 25%, 50%, 75%, 100%를 첨가하여 곤약 젤리를 제조한 후에 품질특성을 측정하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양배추즙 젤리의 조수분과 조지방은 대조군과 첨가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조회분은 대조군보다 첨가군이 유의적으로 많았으며($p<0.05$), 첨가군간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조단백질은 대조군보다 첨가군이 유의적으로 많았으며, 양배추즙 첨가량이 많을수록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1$). pH, 당도는 대조군보다 첨가군이 유의적으로 많았으며, 양배추즙 첨가량이 많을수록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1$). 양배추즙 100% 첨가군의 pH와 당도는 각각 4.39와 19.00 Brix로 가장 높았다. 명도, 적색도, 황색도는 양배추즙 첨가량이 많을수록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1$). 조직감 중 경도, 감성, 씹힘성은 양배추즙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01$). 그러나 부착성, 응집성, 탄력성은 첨가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관능검사 항목 중 양배추즙 젤리의 색과 향미는 대조군과 첨가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색, 맛, 질감에서 양배추즙 25% 첨가군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이상의 결과 양배추 젤리 제조 시, 양배추즙 25%를 첨가하는 것은 젤리의 맛과 전반적인 기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김숙영, 김기주(2017) 양배추 분말을 첨가한 스펀지 케이크의 품질특성 및 항산화 활성.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24(2): 294-302.
- 하지수, 박소은, 황인국, 방경원, 김성훈, 이준구, 최장선, 강해주(2023) 양배추 유전자원의 항산화 활성 비교.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52(7): 679-690.
- 이효정, 박세은, 최준희, 김기만(2022) 유산균 발효 양배추의 생리활성 특성.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29(2): 241-253.

발효 쌀가루에 변성전분 및 잔탄검 첨가에 따른 건면의 품질특성

Quality Characteristics of Dry Noodles according to the addition of Modified Starch and Xanthan Gum to Fermented Rice Powder

황선영^{1*} • 파이샤샤¹ • 유현희^{2*} • 이현기³

^{1*}군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석사과정

^{2*}군산대학교 식품생명과학부 식품영양학전공 교수

³(주)제이온 대표이사

Seon Yeong Hwang^{1*} • Sha Sha Dai¹ • Hyeon Hee Yu^{2*} • Hyun Ki Lee³

¹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Kunsan National Univ.

²Professor, Major of Food and Nutrition, Kunsan National Univ.

³President, JEION CO., LTD.

쌀을 첨가한 국수 제조에는 글루텐 함량이 중시되는 밀가루와 달리 쌀의 호화 후 팽윤 전분입자와 수용성 아밀로오스에 의한 연속상의 망상구조에 의해 점탄성 겔 형성이 쌀국수 구조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 유산균 발효 쌀가루의 겔 증가는 기능적 변화로 쌀국수에 접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에 유산균 발효 쌀가루를 이용한 쌀국수 건면에 변성전분과 잔탄검을 넣어 건면을 제조하고 품질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변성전분은 아세틸아디핀산이전분으로 원재료는 찹옥수수이며 높은 점도 발현, 내열성, 내산성, 내전단성, 부드러운 식감, 냉해동안정성 기능이 있다. 잔탄검은 *Xanthomonas Campestris* 균을 사용하여 탄수화물을 순수 배양 발효하여 얻은 고분자 다당류 검물질을 아이소프로필알코올에 정제·건조·분쇄한 것으로서 우수한 내열성을 가지고 있다. 건면 제조는 대조군에는 밀가루 100%, 실험군 1, 2에는 밀가루에 각각 박력 쌀가루, 발효 쌀가루를 20% 첨가에 전분과 검은 미첨가, 실험군 3, 4는 각각 박력 쌀가루, 발효 쌀가루 20% 첨가에 전분은 5%, 검 1%를 첨가하여 제조하였다. 연구결과, 조리특성 중 수분흡수율은 78.38~87.84%, 조리면의 부피는 348.33~350.73 ml로 대조군과 실험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국물의 탁도는 대조군보다 실험군이 유의적으로 낮았다($p<0.001$). pH는 조리전은 실험군 4가 가장 낮았으나, 조리후엔 대조군이 가장 낮았다($p<0.001$). 당도는 조리전은 실험군 2, 실험군 4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조리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조리면 조직감 측정 결과 경도, 부착성, 감성, 씹힘성이 군간에 유의적 차이가 있었으며, 실험군4가 가장 높은 수치였다($p<0.05\sim0.001$). 인장강도는 실험군2이 가장 높았으며 대조군과 실험군4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p<0.001$) 글루텐 함량은 대조군보다 실험군이 유의적으로 낮았다($p<0.001$). 이에 발효쌀가루 20%에 아세틸아디핀산이전분 5%, 잔탄검 1% 첨가는 쌀국수의 품질 특성 개선 효과가 뛰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 정복미, 박순옥, 신태선. (2009). 매생이 가루를 첨가한 쌀국수의 개발 및 품질 특성.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25(2), 180-188.
- 최수영, 조준현, 고봉경. (2012). 제면 적성 시험을 위한 쌀국수 제조 방법.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41(12), 1823-1829.
- 배동국. (2021). 그린바나나 분말 첨가 현미 쌀국수의 품질 특성. 국내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본 연구는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의 전라북도 돌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과제명:유산균 발효 쌀가루 소재화 기술 활용 HMR 건면 품질 개선)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카사바 분말 첨가 곤약 젤리의 제조 및 품질특성 Manufacturing and Quality Characteristics of Cassava Powder-Added Konjac Jelly

황선영^{1*} • 파이샤샤¹ • 유현희^{2*}

^{1*}군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석사과정

^{2*}군산대학교 식품생명과학부 식품영양학전공 교수

Seon Yeong Hwang^{1*} • Sha Sha Dai¹ • Hyeon Hee Yu^{2*}

¹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Kunsan National Univ.

²Professor, Major of Food and Nutrition, Kunsan National Univ.

젤리는 당과 수분을 결합하는 겔화제를 혼합하여 일정 모양으로 성형·응고시킨 반 고체상의 겔(gel)상 식품이다. 겔화제에 따라 젤라틴 젤리, 한천 젤리, 펙틴 젤리, 전분 젤리 등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곤약은 글루코만난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당뇨병, 비만증 예방에 응용된다. 카사바(*Manihot esculenta*)는 탄수화물, 칼슘, 비타민 C 등이 풍부한 구황작물로, 소화력 향상 및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또한 당지수는 낮아 오랜 포만감을 유지시키는데 이는 비만인, 당뇨 환자를 위한 기능성 식품을 만들기에 적합해 보인다. 뿌리에는 20~25%의 녹말이 들어있는데, 아밀로펙틴 함량이 높아 쫄깃한 식감을 만든다. 현재까지 카사바 관련 식품 연구엔 식빵, 모약과 등이 보고되고 있으나, 그 종류가 한정적이고 미미한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카사바 분말 첨가 젤리 제조를 통해, 카사바의 활용도를 확대하고자 한다. 곤약 젤리는 카사바 분말 미첨가군을 대조군(C)으로 하고, 실험군엔 0.7%(P2), 1.4%(P4), 2%(P6), 2.7%(P8)를 각각 첨가하여 제조하였다. 연구결과, 수분함량은 대조군보다 실험군이 유의적으로 낮았으나, P6과 P8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p < 0.001$). 조회분과 조지방은 대조군과 실험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조단백질은 대조군과 P2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P4, P6, P8은 카사바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 < 0.001$). pH는 대조군보다 실험군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카사바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p < 0.001$). 당도는 대조군과 P2는 유의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나, P4, P6, P8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 < 0.05$). 명도는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p < 0.001$), P2와 P4, P6과 P8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적색도와 황색도는 카사바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 < 0.001$). 경도는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P4와 P6은 유의적으로 차이가 없었다($p < 0.001$). 부착성, 응집성, 탄력성, 씹힘성은 대조군과 실험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감성은 대조군보다 실험군이 유의적으로 높았지만, P4, P6, P8 간에는 유의적으로 차이가 없었다($p < 0.001$).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카사바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P6과 P8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p < 0.001$). 폴리페놀 함량은 대조군보다 실험군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나($p < 0.001$), P2와 P4, P6과 P8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관능검사 결과, 색은 대조군보다 실험군이 유의적으로 높았지만, P4, P6, P8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p < 0.001$). 맛과 향미, 외관은 대조군과 실험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질감은 카사바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지만, P6과 P8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p < 0.001$). 전반적인 기호도는 대조군보다 실험군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P4, P6, P8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p < 0.05$). 따라서 본 연구에선 카사바 분말 첨가 곤약 젤리 제조 시, 높은 연구결과 및 관능적 기호도를 나타낸 P6이 가장 적합하다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최재진, 이승주(2023). 반죽 숙성 시간에 따른 타피오카 전분 첨가 우동면의 품질 특성. 한국식품과학회지, 55(1), 66-74.
김혜숙, 황은선(2022). 돼지감자 추출물을 첨가하여 제조한 젤리의 품질특성 및 항산화 활성.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51(5), 476-482.
전재은, 이인선(2019). 청포도즙의 첨가가 곤약젤리의 품질특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34(5), 629-636.

블랙커런트 추출물이 포화지방산으로 유도된 C2C12 분화 세포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blackcurrant extracts on palmitic acid-induced C2C12 myotube model

남유리* • 김지민 • 김예지 • 김경아

충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박사과정*, 충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석사과정, 충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석사과정, 충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Nam, You Ree* • Kim, Ji Min • Kim, Ye Ji • Kim, Kyung Ah
Department of Food & Nutri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인체에서 가장 큰 기관인 골격근은 자세, 운동 및 내분비계 유지에 필수적이며, 골격근의 감소는 신체 여러 필수 기능에 부정적이다. 근감소증의 병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육량의 점진적인 손실이 특징이며, 급격한 손실과 영양 부족으로 더 급속화 될 수 있으나, 현재 근감소증 치료제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포화지방산으로 근감소증이 유도된 C2C12 근관 세포모델에서 블랙커런트 추출물의 효능을 평가하여 기능성 소재로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블랙커런트 추출물의 근감소증 예방 효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근관세포로 분화시킨 마우스 골격근 세포에 포화지방산인 palmitic acid를 처리하여 근감소증 모델을 제작한 후 블랙커런트 추출물을 처리하였다. 형태학적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블랙커런트 처리된 근관을 염색하여 광학현미경 하에서 관찰하였다. 또한 근육 관련 유전자인 MuRF-1, Atrogin-1, Myostatin 및 MyoD의 mRNA 발현을 qRT-PCR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western blot을 통해 MuRF-1과 Atrogin-1의 단백질 발현 수준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현미경을 통해 포화지방산인 palmitic acid로 근관 수축이 유도된 것을 관찰하였으며 블랙커런트 추출물이 근수축을 개선한 것을 확인하였다. 블랙커런트 추출물은 palmitic acid의 유도로 증가된 MuRF-1, Atrogin-1, Myostatin의 mRNA 발현을 감소시켰으며 근감소 유전자 발현과 음의 관계인 MyoD의 발현도 개선시켰다. 포화지방산은 MuRF-1 및 Atrogin-1 단백질 수준을 증가시키는데, 블랙커런트 추출물의 처리는 두 지표의 단백질 수준을 감소시켜 근감소 억제 효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 블랙커런트 추출물이 palmitic acid로 유도된 근감소증의 개선을 확인하였으며 근감소와 관련된 기능성 소재로써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RS-2023-0025165131482092640001)

블랙커런트 추출물이 근위축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blackcurrant extracts on muscle atrophy

김지민* • 김예지 • 남유리 • 김정아

충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석사과정*, 충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석사과정, 충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박사과정, 충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Kim, Ji Min* • Kim, Ye Ji • Nam, You Ree • Kim, Kyung Ah
Department of Food & Nutri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본 연구는 C2C12 근관세포를 이용하여 tumor necrosis factor alpha(TNF- α)로 유도된 근위축 모델에서 블랙커런트 추출물의 근위축 보호 효과를 연구하였다. 블랙커런트 추출물의 근위축 보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분화시킨 C2C12 세포에 TNF- α (20ng/mL)를 처리한 후 블랙커런트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하였다. C2C12 세포에 대한 독성은 TNF- α (20ng/mL)를 처리한 후 블랙커런트 추출물을 농도별(0, 12.5, 25, 50, 100, 200 μ g/mL)로 처리하여 Water-Soluble Tetrazolium(WST) assay로 측정하였다. 근육 관련 유전자인 muscle ring finger protein-1(MuRF-1), Atrogin-1, Myostatin 및 Myogenic Differentiation(MyoD)의 mRNA 발현은 qRT-PCR를 통해 분석하고 형태학적 변화를 정량화하기 위해 근관을 염색하여 광학현미경 하에서 근관 너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블랙커런트 추출물이 C2C12 세포 생존력에 미치는 영향은 50 μ g/mL 이하의 농도에서 세포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실험에서 C2C12 세포에 처리하는 블랙커런트 추출물은 50 μ g/mL이하의 농도로 처리하여 진행하였다. C2C12 세포에 TNF- α 를 단독으로 처리한 군은 Atrogin-1, MuRF-1, Myostatin의 mRNA 발현을 증가시켰고 초기 단계 근육 분화의 유도과 유지를 담당하는 MyoD의 발현은 감소시켰으며 TNF- α 처리에 의해 평균 근관 폭이 줄었음을 관찰하였다. 반면, 블랙커런트 추출물 처리는 TNF- α 처리에 의해 증가한 Atrogin-1, MuRF-1, Myostatin의 mRNA 발현을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시켰으며 MyoD의 발현 또한 증가시켰고 평균 근관 폭을 증가시켰다. 본 연구 결과는 블랙커런트 추출물이 TNF- α 로 유도된 근위축을 개선하는 기능을 가짐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로 향후 블랙커런트 추출물이 근육 위축 관련 건강 기능성 식품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RS-2023-0025165131482092640001).

전북지역 시판 발효유제품의 관능적 특성, 제품 시장성과 포장패키지에 대한 소비자 평가 및 상관관계 분석

Consumer evaluation and correlation analysis of the sensory characteristics, marketability, and packaging of fermented dairy products in Jeonbuk area

조유현¹ · 김현우² · 이지은³ · 노정옥^{4*}

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대학원생¹, 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학부생², 군장대학교 스마트농식품과 교수³, 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4*}

Yu Hyeon Jo¹ · Hyeon Woo Kim² · Ji Eun Lee³ · Jeong Ok Rho^{4*}

^{1,2,4}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Human Nutri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³Department of Smart Agri-food Resources, Kunjang University College

본 연구는 전북지역에서 개발·시판되고 있는 발효유제품의 품질 평가 및 마케팅 정보 제공을 위하여 제품의 관능적 특성, 시장성 및 포장 패키지를 평가하였다. 제품은 구워먹는 치즈 2종, 요거트 2종, 요구르트 젤라또 1종으로 총 5종의 제품을 39명의 소비자가 평가하였다. 관능평가항목은 발효유제품의 색, 향, 외관, 맛, 목넘김, 전반적인 기호도 등 6 항목으로 9점 척도법을 이용하였고 시장성평가항목은 품질신뢰성, 구매의사, 구입용이성을 10점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포장 패키지 평가는 속포장, 외부포장으로 구분하여 총 20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관능평가 결과 색은 치즈누룽지포가 유의적으로 낮았다($p<0.01$). 향($p<0.001$), 목넘김($p<0.001$)은 요구르트젤라또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외관($p<0.001$)은 구워먹는 치즈가 유의적으로 높았고 맛($p<0.001$)과 전반적인 기호도($p<0.001$)는 구워먹는치즈와 요구르트젤라또가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시장성 평가 결과, 제품 간 품질신뢰성에 대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구입용이성($p<0.001$)은 구워먹는치즈가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다. 구매의사($p<0.001$)는 구워먹는치즈와 요구르트젤라또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포장패키지 평가 결과, 구워먹는치즈가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다($p<0.01$). 발효유제품의 관능적 특성, 시장성 및 포장 패키지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향은 색($r=0.610$, $p<0.001$)과, 외관은 색($r=0.230$, $p<0.01$), 향($r=0.192$, $p<0.05$)과, 맛은 색($r=0.224$, $p<0.01$), 향($r=0.228$, $p<0.01$), 외관($r=0.635$, $p<0.001$)과, 목넘김은 색($r=0.286$, $p<0.001$), 향($r=0.291$, $p<0.001$), 외관($r=0.432$, $p<0.001$), 맛($r=0.609$, $p<0.001$)과 전반적기호도는 색($r=0.275$, $p<0.001$), 향($r=0.381$, $p<0.001$), 외관($r=0.564$, $p<0.001$), 맛($r=0.710$, $p<0.001$), 목넘김($r=0.677$, $p<0.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매의사는 외관($r=0.345$, $p<0.001$), 맛($r=0.437$, $p<0.001$), 목넘김($r=0.431$, $p<0.001$), 전반적기호도($r=0.554$, $p<0.001$)와 구입용이성은 외관($r=0.365$, $p<0.001$), 맛($r=0.274$, $p<0.001$), 전반적기호도($r=0.228$, $p<0.005$)와 양의 상관관계, 구매의사($r=0.369$, $p<0.001$)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포장 패키지는 색($r=0.221$, $p<0.005$), 향($r=0.290$, $p<0.001$), 품질신뢰성($r=0.268$, $p=0.001$)과 양의 상관관계, 외관($r=-0.191$, $p<0.05$), 맛($r=-0.202$, $p<0.01$)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PCA 분석결과, 총 설명력은 66.31%이며, 구입의사는 제품의 외관, 맛, 목넘김, 전반적인 기호도의 영향을 받으며, 품질신뢰성은 포장패키지의 식품표시사항 표시의 영향으로 항목 간 높은 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 전북지역의 소비자들은 발효유제품 중 구워먹는 치즈가 가장 높았으며 외관, 맛, 전반적기호도, 구입용의성, 구매의사, 패키지 평가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요구르트젤라또는 향과 맛, 목넘김, 구매의사, 전반적인 기호도에서 긍정적인 평가였다. 다른 제품의 평가를 볼 때, 향후 제품의 포장에 식품표시사항을 정확하게 제시한다면 소비자들이 보다 만족하는 발효유제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식 저탄소 채식메뉴의 영양분석 및 AI 푸드스캐너와 실측 잔반량법을 이용한 초등학생의 기호도 비교

Nutrient analysis of low-carbon vegetarian menu for school meals and analysis of prefere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using AI food scanner and actual leftover quantity method

최선아 • 노정옥*

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박사과정, 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Choi, Sun A • Rho, Jeong Ok*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Human Nutri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본 연구는 영양기준에 따른 저탄소 채식메뉴의 영양비교와 학생들의 기호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전주시 초등학교 5, 6학년 328명을 대상으로 실측잔반량과 AI 푸드스캐너를 이용하여 메뉴 기호도를 비교해 보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자 학교의 저탄소 채식 메뉴는 월 2회 이상 육류를 제외한 해산물, 유제품, 알류, 채소로 구성된 페스코식단(pesco-vegetarian)으로 제공되었다. 메뉴 구성은 2022년 4개의 저탄소 채식 중점학교의 영양교사 4인으로 구성된 Focus Group Interview (FGI)를 통하여 결정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7.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χ^2 -test을 실시하였으며 AI 푸드스캐너는 AI Nuvi Scanner(Nuvilab, Inc.)를 이용하였다. 일주일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제공된 저탄소 채식식단의 메뉴 A는 친환경쌀밥, 바지락순두부찌개, 솔방울오징어볶음, 삼색어묵잡채, 매실깻잎장아찌, 배추김치, 배, 메뉴 B는 친환경쌀밥, 해물칼국수, 참치김치전, 고등어테리야끼구이, 콩나물무침, 깍두기, 사과로 구성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과 나이에 적합한 NEIS의 영양기준량은 635.0kcal이었으며 메뉴 A는 634.5kcal, 메뉴 B는 680.1kcal로 기준에 적합하였다.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저탄소 채식메뉴를 제공시 적은 단백질 양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지만 두 메뉴 모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 기준치에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에서 제공되는 저탄소 채식 메뉴의 경우 완전채식의 형태가 아니므로 성장기 어린이가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량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인다. 특히, 티아민의 경우 NEIS의 기준은 0.30mg이었으며 메뉴 A는 0.40mg, 메뉴 B는 0.30mg으로 저탄소 채식메뉴가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리보플라빈도 기준치는 0.35mg이었으나 메뉴 A는 0.40mg, 메뉴 B는 0.50mg으로 더욱 높은 수치를 보였다. 철의 경우는 기준치가 3.54mg이나 메뉴 A는 4.80mg, 메뉴 B는 3.40mg을 나타냈다. 메뉴 A와 메뉴 B의 총배식량과 총잔반량은 각각 메뉴 A는 201,105g, 45,000g, 메뉴 B는 174,930g, 50,540g으로 실제 섭취율은 각각 77.6%, 71.1%, AI 푸드스캐너로 측정된 총섭취율은 각각 71.8%, 74.6%이었다. 밥과 김치를 제외했을 때 기호도를 보면 메뉴 A에서 삼색어묵잡채에 대한 기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바지락 순두부찌개의 기호도가 가장 낮았다. 메뉴 B는 참치김치전의 기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고등어테리야끼구이가 가장 낮았다. 이상의 결과, 저탄소 채식 메뉴의 영양량은 기준치에 적합하였으며 저탄소 채식 메뉴의 섭취율은 실측잔반량과 AI푸드스캐너 모두 총섭취율이 71%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탄소 채식메뉴 운영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메뉴별 섭취율 차이가 크므로 향후 저탄소 채식메뉴에 대한 학생들의 기호도를 높이기 위하여 메뉴의 잔반량 분석을 통한 채식메뉴의 문제점 보완과 다양한 채식 메뉴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

겠다. 또한, 매일 메뉴별 실측잔반량을 측정하여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AI 푸드스캐너와 같은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저탄소 채식메뉴를 운영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글루텐 프리 한방스낵의 품질평가

Quality Evaluation of gluten-free snack fortified with oriental herbal ingredients

김소희¹ • 유 민^{1*} • 장수빈¹ • 장진우¹ • 정예림¹ • 최일숙^{2, 3}원광대학교 식품영양학과¹*, 원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², 원광대학교 생활자원개발연구소 소장³Kim, SoHee¹ • Yoo, Min^{1*} • Jang, SooBin¹ • Jang, JinWoo¹ • Jung, Yerim¹ • Choi, IlSoolk^{2, 3}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Wonkwang University^{1,2}, Institute for better living³

소비자의 기호 다양성 및 간단 식품 추구 등은 스낵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졌으며, 소비자들은 건강과 향미 등을 고려한 스낵에 대한 니즈가 있어 최근 많은 스낵 제품들이 개발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글루텐 프리 스낵에 한방 소재를 첨가한 글루텐 프리 한방 스낵의 제조 및 품질 평가를 진행하였다. 글루텐 프리 한방스낵 제조를 위하여 밀가루 대신 쌀가루를 사용하였으며, 쌀은 세척해 24시간 동안 냉장 상태에서 수분 제거와 건조 및 분쇄하여 mesh를 통과시켜 입자를 균질화 하였다. 또한 식품 사용 가능한 한방소재 8종을 함께 가열하여 추출 및 열풍건조 처리 후 쌀가루와 동일하게 mesh를 통과하여 입자를 균질화하였다. 균질화된 한방소재 분말(0%, 1.25%, 2.5%, 3.75%, 5%)을 각각 쌀가루에 첨가하여 스낵을 제조하였으며, 제조된 스낵은 이화학적 특성 분석 및 항산화 성분과 활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글루텐 프리의 한방스낵에 대한 수분함량은 무첨가군 스낵(1.43%)이 가장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한방소재 첨가에 따라 유의적 감소하여 5% 첨가군(1.26%)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고, 한방소재 첨가군 사이에서는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조회분 함량은 한방 소재가 첨가될수록 유의적 증가를 나타냈으나, pH의 경우는 한방소재 무첨가군에서 pH 6.49이었고 한방소재가 첨가될수록 유의적 감소를 나타내어 5% 첨가군에서는 pH 5.08로 감소가 나타났다. 색도는 명도(L* value), 적색도(a* value), 황색도(b* value) 모두 한방소재가 첨가될수록 유의적 감소 경향을 나타냈고, 460nm에서 측정된 갈색도 또한 색도의 경향과 유사하게 한방 소재 첨가에 따라 갈색도도 증가를 나타냈다. 한방스낵의 총당과 환원당 함량은 한방소재가 첨가될수록 유의적 증가를 나타냄으로, 한방소재의 첨가에 따라 스낵의 단맛 증가 경향을 알 수 있었다. 항산화 성분인 total polyphenols과 total flavonoids의 분석 결과, 한방 소재 무첨가군에 비하여 첨가농도가 증가될수록 항산화 성분인 total polyphenols과 total flavonoids도 농도 의존적 증가가 나타났다. 항산화 활성을 분석하는 DPPH radical scavenging, ABTS radical scavenging,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Reducing Power의 결과에서도 한방소재 성분의 첨가에 따른 농도 의존적이며 유의적인 항산화 활성능의 증가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한방소재 성분이 첨가될수록 스낵의 단맛과 신맛의 증가와 함께 항산화 성분과 항산화 활성 등이 함께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어 향후 소비자에게 건강 증진과 더불어 기호적 맛의 향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한방스낵으로의 제품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논문(포스터)발표

아동 · 가족 분야

보육교사의 창의 마인드셋이 교수효능감을 매개하여 창의적 교수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Childcare Teacher's Creative Mindset on Creative Teaching Behaviors Mediating Instructional Self-Efficacy

김영민* • 민하영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석사과정, 아동학과 교수

Kim, Young Min*, • Min, Ha Yeoung

Department of Child Studies, Daegu Catholic University

1. 서론

최근 유럽연합(EU)의 주요 기관인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는 5차 산업혁명의 시작을 알렸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미래 사회는 지식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게 되었고,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의 성장’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생애 초기 유아를 대상으로 창의성 발달을 지원하는 과정은 미래 인재 양성에 꼭 필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특히 보육교사의 창의적 교수행동은 유아의 창의성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보육교사의 창의적 교수행동은 유아의 확산적 사고와 창의적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창의적 교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유아 창의 교육에 필요한 정보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보육교사의 창의적 교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창의 마인드셋과 교수효능감을 제시할 수 있다. 보육교사가 개인의 창의성이 성장가능한 요인으로 인식하는 창의 마인드셋을 가질수록 유아의 창의성을 성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수행동을 구현할 것이다. 또한 보육교사가 교수행동을 잘 할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수록 성공적인 창의적 교수행동을 수행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창의적 교수행동이 창의 마인드셋과 교수효능감에 의해 영향받는지, 그리고 보육교사의 창의적 교수행동에 대한 창의 마인드셋이 교수효능감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대구 경북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255명을 대상으로, 5점 척도로 이루어진 Karwowski(2014)의 창의 마인드셋 문항, Bandura의 교사효능감 문항에서 교수효능감 하위요인, 백영숙과 김희태(2008)의 창의적 교수행동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6.0과 SPSS Process macro 4.1의 모델 4를 통해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보육교사의 창의적 교수행동은 창의 마인드셋($B = .17, p < .01$)이 높을수록, 교수효능감($B = .66, p < .001$)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의 창의 마인드셋은 교수효능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 = .26, p < .001$). 여기서 고려할 것은 보육교사의 창의 마인드셋이 교수효능감을 매개하여 창의적 교수행동에 미치는 간접 영향은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을 때 95% 신뢰구간의 하한값(.08)과 상한값(.26)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창의 마인드셋과 창의적 교수행동 간의 관계에서 교수효능감의 매개 모형은 완전 매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5차 산업사회 진입과 함께 창의성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교사의 창의적 교수행동은 유아의 창의성 계발의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보육행정 측면에서 보육교사가 창의 마인드셋과 교수효능감을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직무환경구성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의 전문성 지원환경이 보육교사의 창의적 교수행동에 미치는 영향: 놀이지원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ffects of Early Childhood Care Institution's Professional Learning Environment On Early Childhood Teachers' Creative Teaching Behavior: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Play Support Competency

황성희* • 조우미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석사과정, 아동학과 조교수

Hwang, Sung Hee*, •Cho, Woomi

Department of Child Studies, Daegu Catholic University

1. 서론

이 연구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인 영유아의 창의성을 발현시키기 위한 보육교사의 창의적 교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보육교사의 창의적 교수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보육교사의 창의적 교수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변인으로 어린이집의 전문성 지원환경과 개인 내적 변인으로 보육교사의 놀이지원역량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영유아의 창의성을 발현시키고 보육의 질적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사의 창의적 교수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대구경북지역 어린이집 교사 254명을 대상으로, Urban(1996)의 창의성 요소모델에 기초하여 Cropley(2004)가 개발한 교사의 창의적 교수-학습 검사를 백영숙, 김희태(2008)가 국내에 맞게 번안·수정한 창의적 교수행동 척도, Williams(2000)가 개발한 전문성 지원환경 검사도구(Professional Learning Environment Inventory: PLED)를 번역·수정한 이금란(2004)의 전문성 지원환경 척도, 조운주(2020)가 개발한 유아교사의 놀이지원역량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rocess macro 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첫째, 어린이집의 전문성 지원환경은 보육교사의 창의적 교수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육교사의 놀이지원역량은 창의적 교수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의 전문성 지원환경은 보육교사의 창의적 교수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보육교사의 놀이지원역량을 매개로 창의적 교수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이 연구는 미래 사회의 필수 역량인 영유아의 창의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보육교사의 창의적 교수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탐색하고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보육교사의 창의적 교수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린이집의 전문성 지원환경과 보육교사의 놀이지원역량을 밝혔다. 이는 어린이집의 적극적인 전문성 지원환경과 보육교사의 높은 놀이지원역량이 보육교사가 창의적 교수행동을 수행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보육교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풍토 조성 및 학습공동체와 같은 어린이집의 전문성 지원환경과 놀이 지원에 대한 실제적 사례 중심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육교사의 창의적 교수행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교사효능감 증진을 위한 순환학습기반 교사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Circular learning base to improve childcare teachers' expertise and teacher efficacy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teacher education programs

구원옥* • 조우미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박사수료, 아동학과 조교수

Gu, wonok* • Cho, Woomi

Department of Child Studies, Daegu Catholic University

1. 서론

이 연구는 순환학습모델에 기반하여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교사효능감 증진을 위한 교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교사효능감 증진을 위한 순환학습기반 교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영유아 보육교사가 실제 영유아 보육·교육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요구를 반영한 평가제 지표와 관련한 내용과 지식을 스스로 구성하고, 습득한 개념을 실제 교육현장에 반영함으로써 전문성과 교사효능감의 증진은 물론 어린이집 평가제 실행 능력의 함양과 4차 표준보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이 기대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대구지역 어린이집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 20명, 비교집단 20명으로 선정하였다. 교사의 전문성 측정을 위해 Wang(2005)이 개발한 전문성 평정척도를 정아람(2016)이 번안·수정해서 사용한 것을 기초로 2019 개정 누리과정과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평가제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였다. 교사의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김정미(2015)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교사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25.0 program을 사용하여, 데이터는 독립 표본 t-테스트, 다변량분산분석(MANOVA)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첫째,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교사효능감 증진을 위한 순환학습기반 교사교육프로그램은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교사효능감 증진을 위한 순환학습기반 교사교육프로그램은 교사효능감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4. 결론

이 연구는 순환학습모델을 기반한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교사효능감 증진을 위한 교사교육프로그램으로 보육교사가 주도적으로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고 내적인 동기유발을 통해 교사로서 지식과 태도를 습득하게 됨으로써 질 높은 전문성과 교사 효능감 향상을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교사효능감은 일방적 대집단 강의나 정형화된 연수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고 동료와의 협력과 토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증진된다는 점에서 교육적 함의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국립 과학관의 유아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분석

An Analysis of the Operation Status of Education Program for preschooler in in the National Science Museum & Center

정희영* • 이정화

부경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석사과정*, 부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Jung, Heeyoung* • Lee, Jeonghwa

Early Childhood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본 연구는 대표적인 비형식 과학학습 기관인 국립과학관의 유아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그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 국립과학관 11개소에서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실시된 유아 대상 교육프로그램 146개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였다.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분석을 위한 분석 도구를 제작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과학관별로 처리한 후 빈도와 백분율로 결과를 산출하였다. 첫째,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육프로그램의 대상은 유아 개인이 가장 많았고, 가족이 가장 적었다. 유형으로는 통합이 가장 많았고, 이론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주제는 자연사와 기초과학(자연과학)이 가장 많았고, 과학기술사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유아 연령은 5세, 4세, 3세 순으로 나타났고, 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유아 이상의 연령까지 포함하는 프로그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정원은 10명 이하보다 11명 이상이 많았고,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가이드가 있었다. 시기는 주말이, 시간은 1-3시간 미만이 가장 많았다. 장소는 대부분 관내였으며, 비용면에서는 무료보다 유료, 유료 중에서는 1-3만 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교육프로그램의 전시 관련성은 낮게 나타났고, 교육과정 관련성은 높게 나타났다. 활동 수준은 핸드온이 가장 많았고, 참여 수준은 단순히 가장 많았다. 둘째,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과학관의 유아 대상 교육프로그램에서 유아 및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운영 방식, 주제와 내용의 다양성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학관에서는 유아의 발달적 특성과 유아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및 분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유아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유아교육기관과 협력하고 유아 관련 전문가나 경험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과학관에서는 유아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심화 수준의 다양한 유형으로 연계성 있게 운영해야 하며, 특히 현저히 부족한 장기 ‧ 관외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학관의 유아 대상 교육프로그램에서 가장 부족한 과학기술사에 대한 교육 확대가 필요하며, 다양한 주제와 내용의 연계 및 확장을 위해 특별전시와 상설전시를 골고루 활용해야 한다. 종합하자면, 국립과학관의 유아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확대와 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유아와 유아교육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과학관, 유아교사 등 여러 구성원 간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그 내용과 방법 측면에서 다양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순환학습기반 교사-부모협력 증진 교사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a circular learning-based teacher-parent cooperation promotion teacher education program

류은주* • 조우미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박사수료, 아동학과 조교수

Ryu, Eunju*, • Cho, Woomi

Department of Child Studies, Daegu Catholic University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순환학습모델을 기반으로 교사-부모협력 증진 교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에 순환학습모델과 팀 기반을 절충한 교수방법을 적용하여 문헌조사와 교사면담을 통한 현장 적합성 검증을 통해 부모와의 신뢰형성, 부모소통과 참여, 부모와의 관계에서 권한과 책임 명료화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따라서 교사들은 교사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고 다양한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현장에서 자신감을 갖고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처럼 교사-부모협력 증진 교사교육프로그램은 긍정적인 교사-부모협력 관계형성을 돕는 자료로 활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의 대상은 D지역 어린이집 현직교사 40명으로, 실험집단 20명과 비교집단 20명으로 선정하였다. 교사-부모 협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Ware, Barfoot, Rusher와 Owen(1995)이 제작하고 Owen, Ware와 Barfoot(2000)이 수정한 The Caregiver-Parent Partnership Scale(교사용)의 척도를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교사-부모관계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홍승이와 이순자(2019)의 부모에 대한 교사효능감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25.0 program을 사용하여, 데이터는 독립 표본 t-test,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첫째 순환학습기반 교사-부모협력 증진 교사프로그램이 교사-부모협력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순환학습기반 교사-부모협력 증진 교사교육프로그램이 교사-부모관계 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이 연구는 순환학습모델기반 교사-부모협력 증진 교사교육프로그램으로 교사-부모와의 긍정적 관계형성을 위해 부모와의 신뢰형성, 부모소통과 참여, 부모와의 관계에서 권한과 책임 명료화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교사 스스로가 지식을 구성하고 다양한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교사-부모협력을 증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순환학습을 기반을 둔 영유아 교사가 부모와의 관계 형성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며 지식을 구성해 가는 학습자임을 인식하고, 팀 기반 활동을 절충하여 동료 간의 피드백을 통해 다양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적용 및 평가를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저출산 민원 게시글에 나타난 국민의 영유아 정책에 대한

인식 :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the Public for Infant and Toddler Policy in Civil Complaints related to Low Fertility : Focusing on Text Mining Method

홍향희* • 이정화

부경대학교 유아교육과 석사과정*, 부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Hong, Hyanghee* • Lee, Jeonghwa

Early Childhood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온라인 청원게시판 국민신문고에 게시된 저출산 관련 민원 992건을 중심으로, 영유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대한민국은 2022년 0.78명이라는 역대 최저치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으며, OECD 가입국 중 합계출산율이 1 미만인 유일한 나라다(통계청, 2023). 인구는 사회 구성의 기본단위이기에, 저출산 현상의 지속은 생산인구의 감소, 경제성장의 둔화, 고령화 등을 야기하여 국가 존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는 2006년부터 5년을 주기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왔으나, 여전히 국민의 공감과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저출산 현상은 복합적인 요소로부터 기인한 사회적 문제며, 정책 설계의 기반은 수요자에 대한 분석이기에, 대중의 인식 파악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중심으로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정부의 기본계획 추진 시기와의 비교를 통해 내포된 의미와 영유아 정책 수요자의 특성을 도출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텍스트 마이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취약집단의 고충을 반영한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국민의 인지도가 낮아 수혜를 받지 못하거나 제도의 상용화가 더디지는 측면이 있었다. 둘째, 출산·육아로 인한 직장 여성의 경력단절과 일·가정양립의 부담에 대한 대안으로 남성의 육아 분담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작 대중은 남성을 중심으로 한 기업 내 육아 제도와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셋째, 시기가 거듭됨에 따라 외국인 임신부, 장애 영유아,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집단으로부터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해당 민원은 의료 서비스, 경제적 지원과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넷째, 정부의 적극적인 난임부부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횟수·나이 제한 등으로 인해 좌절감을 느끼는 여성의 민원은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고령 여성에 대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었다. 다섯째, 자녀수에 따른 높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두 자녀 이상의 출산 의지가 있음에도 한 자녀 가정에 머무르는 부부들이 다수 존재했다. 이들은 아동수당 등 일시적인 경제적 지원이 출산 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직장 내 다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여섯째, 다수의 국민이 보육교사, 아이돌보미 등 보육 인력에 대한 처우와 인권이 보장되어야 돌봄 인프라 또한 확대 및 안정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출산율이 반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해당 민원은 학부모, 보육교사, 학생 등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작성되었으며, 이들은 영유아를 중심으로 한 보육·교육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업무강도와 다방면에서의 능력을 요구함에도, 교사 대 아동 비율, 급여, 실질적인 휴가 사용 등의 측면에서 보육 인력의 처우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혼자, 여성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역, 성별, 가족 형태를 고려한 홍보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며,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 상용화를 위한 장기적인 접근과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유아교사의 행복감, 직무만족도, 심리적 소진 간 관계

The relationship among happiness, job satisfaction, psychological burnout of Chinese early childhood teachers

왕정* • 서희전

부경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동명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Wang, Ting* • Sun, Hee Jeon

Early Childhood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Early Childhood Education, Tongmyong University

1. 서론: 유아교사의 행복감, 직무만족, 심리적 소진은 유아교육의 질과 관련이 깊다. 그러나 중국의 유아교사는 열악한 근무 환경과 긴 근무 시간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행복감과 직무만족도가 낮고 심리적 소진의 정도가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유아교사의 행복감, 직무만족도, 심리적 소진 간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유아교사의 인식을 기반으로 행복감과 직무만족도, 심리적 소진 간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연구의 대상은 중국 쓰촨성(四川省) 청두시(成都市)의 공립 및 사립 유치원 유아교사 273명을 대상으로 한다. 행복감은 Argyle(2001)의 옥스퍼드 행복척도(OHQ)를 권석만(2011)이 유아교사에 맞게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직무만족도는 허선영(2005)이 전성연(1982)과 노종희(2001)의 측정도구를 기반으로 수정·보완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또한, 심리적 소진은 김연옥(2012)이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Pearson의 상관분석을 통해 행복감, 직무만족도, 심리적 소진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3. 연구 결과: 첫째, 중국 유아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복감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교사의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교사의 직위에 따라 직무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소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교사의 직위에 따라 심리적 소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중국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직무만족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하위변수 간에도 정적 관련성이 나타났다. 한편, 중국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심리적 소진 간, 직무만족도와 심리적 소진 간에는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하위변수 간에도 부적 관련성이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중국 유아교사의 연령에 따라 행복감의 차이가 있으며, 교사의 직위에 따라 직무만족도와 심리적 소진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중국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직무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부적 관계로 나타난 심리적 소진을 감소시켜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심리적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한 교사대상 프로그램 개발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의 업무 환경과 보상제도 등을 개선하는 조치를 통해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찬반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Who Vote for or against Civil Partnership Act?

이나련 • 정유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Lee, NaYeon* • Jeong, Yu-Jin
Department of Living, Hangeuk University

생활동반자법은 서구 사회에서 동성혼 도입 전 동성 커플을 위한 혼인의 대안으로 제정되었으나 현재는 이성 커플까지를 포함하는 혼인 외 다양한 유형의 파트너십 제도로 여겨진다(조은희, 2022). 우리나라에서도 사회경제적 환경 및 가치관의 변화로 사실혼, 동거 등 다양한 유형의 생활동반자 관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여 이들이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조은희, 2022). 이러한 주장은 2023년 용혜인 의원이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며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 발의에 대해 종교단체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동성혼의 합법화’를 포함할 수 있어 ‘대한민국의 전통적 혼인 개념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이므로 제정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법률신문, 2023).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 생활동반자법 법률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소원해 보인다. 한 예로 4,349명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 비율은 각각 51.4%와 48.6%로 매우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일요시사, 2023). 이러한 시점에서 생활동반자법 찬반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중요한 선결과제임에도 관련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성역할 및 가족기능에 대한 가치관이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찬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22년 실시한 ‘경기도민의 가족다양성 인식 조사’ 자료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15세~65세($M=41.8$, $SD=13.4$)의 경기도민 2,053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령은 41.8세였고, 이 중 남성이 51.9%였으며 54.5%는 배우자가 있었다. 기술통계, t -test, χ^2 -test,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전체 연구대상자의 76.4%가 생활동반자법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다. 사회인구학적 배경(성별, 연령대, 혼인상태, 자녀유무, 교육수준, 주관적 사회계층, 거주지역)과 성역할 가치관 및 8개의 가족 기능에 대한 필요성 인식정도 중 생활동반자법 찬반의견(0=반대, 1=찬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만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여성인 경우($B=.34$, $p<.01$), 자신의 사회경제적 계층을 ‘하’로 인식한 사람에 비해 그 이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중하층 $B=.53$, $p<.05$; 중층 $B=.59$, $p<.01$; 중상층 이상 $B=.48$, $p<.05$), 성역할 의식이 평등할수록($B=.30$, $p<.01$), 가족의 기능 중 소통과 교류($B=.25$, $p<.05$), 돌봄($B=.20$, $p<.05$), 여가 기능($B=.23$, $p<.05$)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경우 생활동반자법에 찬성할 확률이 높았다. 이에 반해 10대에 비해 30대가($B=-.62$, $p<.05$), 가족의 기능 중 출산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B=-.23$, $p<.01$) 찬성할 확률은 더 낮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족유형의 다양성이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로 제안되어 온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함께 성역할 및 가족 기능 관련 인식이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찬반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보고 또는 여론조사에 비해 본 연구에서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찬성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설문 문항 구성의 특성에 기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농촌 초고령 노인의 생활수준과 삶의 질

A Study on the Standard of Living and Quality of Life of the Korean Rural Centenarians

이정화 • 오영은* • 이보람 • 최현우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교수 •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
전남대학교 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사업단 연구원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농촌환경자원과 전문연구원

Lee, Jeonghwa • Oh, Young Eun* • Lee, Boram • Choi, Hyounwoo

Professor, Departmen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Ec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Researcher, Artificial Intelligence Convergence Innovati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Researcher,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 Korea

초고령 사회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사회는 95세 이상 초고령 노인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특히 그 비율이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농촌에 거주하는 초고령 노인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농촌 초고령 노인의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그들의 생활수준과 삶의 질의 관계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료 수집은 2022년 7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우리나라 장수벨트로 알려진 구례·곡성·순창·담양지역에 거주하는 95세 이상 노인 74명과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심층면접과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연구자 4명은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제반 문제를 예방 및 대처할 수 있는 교육(생명윤리 기초교육, 임상연구개론 등)을 사전에 이수하였으며,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분석과정에서는 녹취파일을 필사 한 후 반복적으로 읽고 반복적인 연구회의를 통해 초고령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수준, 주거상태, 연금수령여부, 동거가족의 수와 접촉빈도, 사회서비스 이용정도,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를 바탕으로 초고령 노인의 주거·경제·자립수준에 근거한 생활수준과 삶의 질,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성 78%(58명), 남성 22%(16명), 연령집단별로는 95~99세 78%(58명), 100세 이상 22%(16명)로 나타났다. 거주 유형은 가족 동거 55%(41명), 독거 45%(33명)이었다. 둘째, 초고령 노인의 생활수준은 주거·경제·자립영역으로 나누어 그 수준을 각각 ‘상’·‘중’·‘하’ 세 단계로 파악하였다. 초고령 노인의 주거수준은 ‘중(45.9%)’, ‘상(29.7%)’, ‘하(24.3%)’의 순이었고, 경제수준은 ‘중(44.6%)’, ‘하(28.4%)’, ‘상(27.0%)’의 순이었으며, 자립수준은 ‘상(37.8%)’, ‘중(33.8%)’, ‘하(28.4%)’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초고령 노인의 삶의 질은 초고령 노인의 생활수준인 주거·경제·자립수준과 부양상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평가하였다. ‘초고령 노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은 수준’을 100점으로 점수화하여 삶의 질 점수가 낮을수록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음을 의미한다. 초고령 노인의 삶의 질은 100점이 전체의 50%였고, 90점 6.8%, 80점 18.9%, 70점 16.2%, 60점 6.8%, 50점 1.4%으로, 초고령 노인의 삶의 질 평균은 87.3(SD=14.6)점으로 분석하였다. 이로써 조사대상자의 절반 정도가 초고령 노인이 되어서도 큰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였다.

결론적으로 조사대상 초고령 노인은 전반적으로 주거와 경제 수준은 ‘중’ 정도의 수준이 많은 반면, 자립수준은 ‘상’, ‘중’, ‘하’의 순으로 나타나 95세 이상 초고령 시기에도 상대적으로 자립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 초고령 노인의 절반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크게 불편하지 않은 정도의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삶의 질이 높은 집단은 삶의 질이 낮은 집단보다 주거·경제·자립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특히 자립수준이 매우 높은 것을 밝혔다. 본 연구는 95세 이상 초고령기 노인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삶의 질이 어떠한지를 심층면접과 관찰을 토대로 객관적인 수치로 분석해내고

과거와 달라진 초고령 노인의 삶을 보여주고자 하였고 이들이 더 질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아동의 로봇 의인화에 대한 탐색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Children's Personification of Robot

임재윤* • 양성은

인하대학교 대학원 아동심리학전공 박사과정*,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교수

Lim, Jaeyoon* • Yang, Sungeun

Department of Child Studies, Inha University

1. 서론

세계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로봇공학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영상인식, 인지과학 등 다학문적 관점에서 인간과 교류할 수 있는 로봇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동과 로봇 상호작용(CRI, Child Robot Interaction)에 대한 탐색은 미흡하다. 아동과 로봇에 대한 연구는 아동이 로봇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서 출발하며, 핵심 개념을 의인화로 볼 수 있다. 의인화란 무생물도 인간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지각하고, 인간을 대하는 것처럼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실제 서비스로봇을 대상으로 아동이 이를 어떻게 의인화하여 지각하며, 어떻게 의사소통하고, 정서적 교감을 시도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대자동차 로보틱스 로봇 DAL-e를 사용하였다. DAL-e는 10세 남아의 형상과 목소리를 가진 인공지능 로봇으로서 아동의 로봇 의인화를 연구하는 데 적합한 대상이다. 연구참여자는 인지 발달 단계에서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만 7, 8세 아동이다. 자료수집을 위해 2023년 1월에서 2월까지 8회기 동안 회기당 5~6명의 아동이 1시간 동안 로봇과 자유롭게 활동하고 상호작용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아동이 활동하는 동안 참여관찰하고, 활동 이후에 아동을 심층면접하였다. 참여 아동 총 45명(여아 20명, 남아 25명, 평균나이 7.6세)의 결과는 질적분석을 통해 결과로 도출되었다.

3. 연구 결과

첫째, 로봇 DAL-e의 형태와 기능은 아동이 로봇을 의인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아동은 로봇의 자극에 의한 반응, 자율주행 기능, 표정의 변화, 팔의 움직임 등의 기능에 놀라움을 표현하였고, 로봇에게 대화를 시도하거나, 로봇의 지시를 따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둘째, 아동은 로봇을 의사소통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아동은 로봇 DAL-e와 처음에는 호기심과 신기함을 표현하였으며, 정보를 제공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지각하고 다양한 의사소통을 시도하였다. 셋째, 아동은 로봇과 친밀감을 느끼고 정서적 교감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아동은 손잡기, 어깨 껴안기, 포옹하기, 쓰다듬기, 토닥거리기, 안아주기 등 신체접촉을 통하여 로봇과 애정을 주고받으려 하였다.

4. 결론

본 연구를 통해서 아동은 로봇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로봇을 인격적인 존재로 지각하며, 의사소통과 정서적 교감의 욕구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동의 정서·사회 발달에 도움이 되는 아동용 로봇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책에 표현된 난민 경험에 대한 분석

Analysis on Refugee Experiences in Picture Books

김세라* • 양성은

인하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전공 박사*,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교수

Kim, Sera* • Yang, Sungeun

Department of Child Studies, Inha University

난민이 전쟁, 내전, 가난, 기후 변화 등의 이유로 인해 증가하면서 범국가적인 문제로 등장했다. 이에, 2015년에 개최된 70차 유엔총회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선포하면서 난민 문제를 여기에 포함시켰고, 난민에 대한 이해 교육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유엔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역시 난민 증가 시대를 살아가야 할 아동이 난민교육을 통해 편견과 차별을 갖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아동이 난민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을 배우는데 적합한 매체로 그림책을 꼽을 수 있다. 그림책은 아동에게 복잡한 주제를 단순화하여 공감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며, 확산적 사고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에 표현된 난민의 경험에 어떠한지를 분석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난민교육 담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국내 및 국외에서 출판된 창작도서와 번역도서 중 난민에 대해 다룬 아동 대상 그림책 20권이다. 문학적성을 기반으로 하되 아동의 인지적 발달수준을 고려한 언어 표현, 스토리 구조, 그리고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는지가 선정기준이 되었다. 또한, UNHCR의 권고에 따라 아동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가족, 학교, 장래 계획 등 친숙한 내용을 다루는 그림책을 선정에 포함하였다. 선정된 그림책은 중심주제분석(thematic analysis)을 통해 내용이 지닌 인류 보편의 가치, 문화적 다양성, 상황적 특수성 등을 고려한 핵심주제를 도출하였다. 자료 분석의 타당화 검증(verification)을 위해 질적연구의 삼각화(triangulation)를 실시하였다.

그림책에 표현된 난민 경험을 분석한 결과, ‘피난을 떠나야만 하는 현실’, ‘힘든 피난의 여정’, ‘새로운 곳에서 정착’이 주제로 나타났다. 전쟁이나 기후 변화로 인해 갑자기 가족과 함께 사는 곳을 떠나야 하는 난민들의 어려움과 고난, 피난 과정에서 죽음의 위험에 직면하는 현실이 그림책에서 표현되었다. 난민들은 피난지에 도착했을 때, 새로운 곳에서 희망과 동시에 타국에서 차별로 인한 좌절을 경험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피난지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고, 타국의 문화와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 또한 나타났다. 이 과정은 주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적응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림책은 아동이 난민의 개념과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설명하고, 난민이 변화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난민 그림책은 아동이 난민에 대한 문제의식을 형성하고, 다양성과 공감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촉진하며, 아동들에게 다양성과 포용을 가치로 여기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아동에게 친숙하고 근접한 그림책을 통한 교육활동이 아동의 난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며, 난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난민에 관한 적절한 교육방안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바람직한 시민의식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아동교육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길 바란다.

트랜스젠더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경험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Parenting Experience of Mothers with Transgender Children

김현정* • 양성은

인하대학교 대학원 아동심리학전공 박사과정*,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교수

Kim, Hyunjung* • Yang, Sungeun
Department of Child Studies, Inha University

남녀 성별은 출생하며 주어지는 생물학적 구분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미국에서 트랜스젠더(transgender)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선천적 성별 구분에 대한 변화가 발생했다. 이후 유럽에서 자기 결정에 기반한 성별 변경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에 대법원 결정에 따라 성별 정정이 승인되면서 국제적 흐름을 같이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트랜스젠더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이며, 특히 트랜스젠더 자녀 양육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

본 연구는 트랜스젠더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경험을 고찰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트랜스젠더 자녀를 둔 어머니 7명이다. 연구방법으로는 Clandinin과 Connelly(2000)가 제안한 내러티브(narrative) 탐구를 활용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는 시간적 특성, 상호작용, 장소라는 삼차원적 공간 속에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다. 자료수집을 위해 트랜스젠더 자녀의 어머니들과 개별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참여자들의 경험 속에 존재하는 중요한 사건(critical event)을 기점으로 시간적 흐름에 따라 분석되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이 놓인 문화적 맥락 내의 규범 및 가치관이 이들의 경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하고, 이들이 상호작용하는 주요 타자들과의 관계성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들의 양육 경험은 자녀가 트랜스젠더로 커밍아웃(coming out)하는 사건을 기점으로 전환된다. 이에, 연구결과는 자녀의 커밍아웃 이전, 커밍아웃 시점, 커밍아웃 후로 구분된다. 첫째, 커밍아웃 이전에는 ‘평범한 “특별한 아이”’라는 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말하는 특별함이란 자녀가 성 유형화에 부합되지 않는 특성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이를 축소하거나 회피하거나 혹은 의도된 무지로 반응하였다. 둘째, 커밍아웃 시점에는 ‘충격과 부정’이라는 주제가 도출되었다. 어머니들은 자녀의 커밍아웃에 대한 충격, 슬픔, 분노 등의 정서적 반응과 함께 현실을 부정하는 방어기제를 나타냈다. 셋째, 커밍아웃 이후 점차적으로 어머니들은 ‘양가적 수용’에 도달한다.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으로 자녀의 성전환을 지원하거나 성소수자 부모 공동체와 유대를 맺으려 한다. 반면 여전히 자녀를 외부 세계에 드러내는 것을 꺼리며 사회적 낙인으로 위축되고,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버리지 못한다.

본 연구는 성별정체성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국내에서 트랜스젠더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험을 고찰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앞으로 성전환자와 이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실증적 연구가 축적되어 타당성 있는 담론화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요양보호사가 지각한 조직공정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직무스트레스와 조직몰입의 매개효과와 시설규모에 따른 다집단분석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justice perceived by care workers on
turnover intention : meditation effects of job str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multigroup analysis by facility scale

최현우¹ • 이정화^{2*}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농촌환경자원과 전문연구원¹ •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교수²

Choi, Hyounwoo¹ • Lee, Jeonghwa^{2*}

Researcher,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 Korea¹

Professor, Departmen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2*}

우리나라는 급속히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돌봄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였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 돌봄, 일상생활 편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 서비스의 핵심 인력은 노인에게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이다. 요양보호사가 근무하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규모에 따라 배치인력에 차이가 있으며, 임금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시설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지각하는 조직공정성과 연결되며, 곧 이직을 결심하게 하는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규모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지각하는 조직공정성 수준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때 이직의도의 선행변수로 보고된 직무스트레스와 조직몰입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시설규모에 따라 어떤 경로를 통해 이직을 결심하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2년 7월 25일부터 2022년 8월 12일까지 서울특별시 외 8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36개소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요양보호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조직공정성, 이직의도, 직무스트레스, 조직몰입 수준을 조사하였다. 규모별 경로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AMOS 26.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집단분석을 통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요양보호사가 지각하는 조직공정성 수준은 소규모시설 집단에서 더 높게($t=2.61$, $p<.01$) 나타났고, 직무스트레스의 경우 대규모시설 집단에서 더 높게($t=2.66$, $p<.01$) 나타났으며, 조직몰입의 경우 소규모시설 집단에서 더 높게($t=6.42$, $p<.001$)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설규모에 따른 조직공정성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경로차이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구조모형의 경로계수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절차공정성 → 직무스트레스 경로에서 소규모시설 집단의 경로($\beta=-.437$, $p<.001$)는 유의하였지만, 대규모시설 집단의 경로($\beta=-.012$, $p>.05$)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집단 간 C.R값은 3.771로 두 집단간의 경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규모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지각하는 절차공정성은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소규모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지각하는 절차공정성은 낮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요양보호사가 지각하는 조직공정성 수준은 직무스트레스와 조직몰입을 통해 이직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양보호사가 지각하는 조직내 공정성 수준은 결국 이직을 결심하게 되는 원인이 되며, 그 과정에서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조직에 대한 몰입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시설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밝혀냈는데, 대규모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절차공정성은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소규모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각 시설에서는 시설규모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지각하는 조직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조직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더해 최근 다양한 주제에 의해 노인요양시설이 운영됨에 따라 표준화된

보상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인력배치기준이 좀 더 완화되어 소규모시설에도 다양한 지원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등 연구결과에 따른 여러 가지 함의를 제시하였다.

농촌거주 백세인 주거환경 위험 및 낙상가능성 평가연구

Assess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s risk and fall potential in near centenarians

SHI MIAOMIAO* • 박선유* • 이정화 •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박사 수료* , 전남대학교 사회복지학협동과정 박사과정*
,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교수

Shi Miao Miao * • Park Seon Yu * • Lee Jeong Hwa •

Dep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Dept. of Social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Dep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 노인 평균수명 증가로 인해 노인 인구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도시의 경우 2010년 9.1%에서 2020년 14.6%로 증가한 반면, 농촌은 2010년 19.5%에서 2020년 24.1%로 급격히 증가했고 2040년에 농촌의 노인 인구 비율은 38%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통계청, 2016; 2021; 박대식, 2019). 이러한 농촌 노인의 증가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는 정책, 서비스들의 중요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주거환경과 관련해 농촌 주택의 상당수는 노후화된 채로 방치되고 있고(성주인 외, 2014), 주거지의 생활 편리성도 도시 지역과 비교했을 때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이윤 경 외, 2020) 그래서 주거환경 위험이나 그로 인한 낙상 가능성은 고령으로 갈수록 더 위험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구례, 곡성, 순창, 담양 지역에 거주하는 백세인(95세 이상)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현장 조사 및 주거환경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농촌 지역의 일부 백세인들의 주거 환경을 상세하게 조사하였다. 주거의 구조적 위험, 방과 부엌 위험, 욕실과 화장실 위험 등이 포함된 3부분의 내부 위험 요인, 외부 위험 요인을 분석하여 낙상 가능성이 높은 지점과 위험 요인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농촌지역에서 만 95세 이상 백세인 74명을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면접조사와 조사원 주거환경관찰을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백세인의 낙상 기능성 기준에 따라 주거환경위험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백세인의 주거환경에서 낙상을 경험할 가능성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특히, 욕실과 화장실에서 낙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백세인의 거주지가 경사가 가파른 곳에 위치하고, 계단이 없거나 계단이 있다 하더라도 미끄럼 방지시설 등이 없고, 백세인 주거지 외부 조명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한 오래된 주택이 많고, 집 주변에 농기구와 농사 관련 물건들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백세인의 외부주거환경 위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백세인의 낙상 경험을 살펴본 결과가 백세인의 40.5%가 최근 1년 이내 낙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농촌 노인 주택이 많은 비율로 노후화된 채로 방치되고 있으며, 주거지의 생활 편리성또한 도시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농촌 노인에게 대한 주택개보수사업의 규모를 달리해서 토방 입구, 화장실, 부엌, 경사 등 세부적인 범위로 확대하는 필요가 있으며,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과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노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농촌 주거 환경 개선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농촌지역, 백세인, 주거환경위험, 낙상가능성

논문(포스터)발표

주생활 · 소비자 · 가정교육 분야

초등학교 리모델링 도서관 사용 후 평가 연구

The Study of Post Occupancy Evaluation on the Library in Elementary School

이민아*

군산대학교 공간디자인융합기술학과 교수

Lee, Min-Ah*

Department of Spatial Design & Fusion Technology, Kunsan National University

본 연구는 리모델링된 초등학교 도서관에 대한 사용자 평가를 통해 향후 초등학생을 위한 공간계획에 피드백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전라북도 지역의 H 초등학교 도서관은 21년 초 리모델링 되었고, 준공 후 주 사용자인 학생과 학부모 58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도서관의 공간은 계단식 학습공간과 무빙책장과 책상, 책을 조망할 수 있는 바테이블과 의자, 매트와 소파, 쿠션 등이 있어 또래와 함께 독서, 자유활동을 할 수 있는 곳과 카페존, 그리고 동굴과 다락 컨셉의 복층 등으로 이루어졌다. 참여 학생은 5학년 29명, 3학년 21명, 남학생 31명, 여학생 19명이었으며, 학생들의 설문지 이해정도를 감안하여 마음에 드는 공간들과 마음에 들지 않는 공간을 자유롭게 적도록 하였고, 전체적인 만족도(5점 척도)를 문항으로 넣었다. 학부모 대상 설문지는 도서관의 공간을 수업, 모임, 서가, 또래활동 및 복층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 공간계획, 마감재, 조명 및 색채,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와 전체적인 만족도(5점 척도) 평가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마음에 드는 부분으로 복층의 다락공간을 가장 좋아하였고(31명, 62.0%), 다음으로 미끄럼틀(23명, 46.0%), 학습계단(21명, 42.0%), 동굴(17명, 34.0%), 소파/쿠션(12명, 24.0%)의 순이었다. 학년별로 저학년은 대부분의 디자인 공간과 요소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 것에 반해, 고학년에서 다락공간에 대한 만족이 상대적으로 높았고(72.4%), 특히, 카페존과 창문 및 바깥을 조망하는 바테이블과 의자의 선호비율이 높았다. 성별로는 남학생들의 미끄럼틀 및 복층과 계단 아래 동굴 공간에 대한 만족이 높았다(각각 54.8%, 48.4%). 여학생들은 부드러운 매트 및 소파, 쿠션과 카페존, 무빙책장과 테이블에 대한 만족이 높았다. 특히, 여학생들은 복층 다락의 조명과 기둥의 형태, 타공판 설비와 같은 디테일한 디자인 요소에 대한 선호를 보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인 만족도는 5점만점에 4.54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반면, 마음에 안드는 부분은 미끄럼틀의 안전성(26명, 52.0%)이 압도적으로 많아, 마음에 드는 것과 별도로 사용하면서 느꼈던 위험성, 아픔, 쓸림 등을 언급하였다. 그 외 불만사항은 고학년에서 주로 언급되었는데, 기본계획 시 요구했었으나 실제 설치되지 않은 다락 커튼(6명, 5학년 여자), 매점(5학년 여자), 시계(5명, 5학년 남자) 등에 대한 불만, 그 외에 다락의 낮은 천장, 5학년들에게는 작은 스케일의 카페존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학부모의 전체만족도는 4.6점으로 학생과 비슷하였고, 대부분의 공간영역에서 계획과 조명 및 색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4.8~4.9점), 마감재료에서는 서가영역의 만족도가(4.8점) 높았다. 학부모 입장에서 도서관 전반영역에 걸쳐 적용된 다양한 높낮이의 레벨차에 대한 안전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으며(3.8~4.6점), 특히 복층영역의 계단과 미끄럼틀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제한된 공간 내에 다양한 영역을 수용하면서 가파른 경사를 가진 매끄러운 목재 미끄럼틀이 설치되면서 우려상황이 발생하여, 부드러운 매트 바닥에 안전을 위한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용 후 평가 연구를 통해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공간요소와 우려되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적용되는 설비의 경우 사용자를 고려한 실시설계의 검토 및 현장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었다. 최근 학교 공간의 개선을 통한 교육의 변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간계획에 있어 공간 본래의 기능을 기본 전제로 혁신을 꾀하고, 다양한 디자인 요소의 삽입을 제언한다.

세대교류 증진을 위한 노인주거공간의 커뮤니티 시설 사례 분석

A Case Analysis of Community Facility Planning for Elderly Residential Spaces to Promote Intergenerational Interaction

이혜빈* • 이영선 • 유다연 • 유성은

군산대학교 공간디자인융합기술학과 학부생*, 군산대학교 공간디자인융합기술학과 학부생,
군산대학교 공간디자인융합기술학과 학부생, 군산대학교 공간디자인융합기술학과 교수

Lee, Hye Bin* • Lee, Young Sun • Yoo, Da yeon • Yoo, Sung Eun

Department of Spatial Design Convergence Technology, Kunsan National University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진행되어 현재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인 인구가 18.4%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3). 고령 인구 중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독사, 경제적 어려움, 사회활동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청년세대도 불안정한 주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안정적 일자리 부족의 심화, 그리고 청년 복지의 문제 등 사회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노인세대와 청년세대가 함께 교류하며 생활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주거가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세대통합형 주거공간의 커뮤니티시설 사례를 분석하여 세대교류 증진을 위한 주거공간의 커뮤니티시설 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대교류와 세대교류형 주거공간의 커뮤니티시설에 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세대교류의 유형 및 세대교류 증진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사례조사의 범위는 노인과 청년이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통해 세대 간 교류가 이루어지는 일본과 스웨덴의 세대교류형 주거공간 4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웹사이트 및 보도자료,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커뮤니티시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세대교류 증진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의 특성은 이벤트성, 활동성, 지원성을 포함한 기획교류와 접근성과 연계성을 포함한 자주적 교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이벤트성’은 주기적인 공동식사 등 거주민 위주의 행사뿐만 아니라 외부의 참여를 유도하여 거주민 이외에도 지역주민 및 다양한 세대가 교류할 기회를 제공한다. ‘활동성’은 교육 및 예술 프로그램으로 노인과 청년의 취미생활을 지원하고 텃밭이나 독서 및 게임 등 내부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즐기고 소통하며 자연스럽게 교류를 이어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지원성’은 다양한 지식을 공유하고 배우는 재능기부 및 교육 프로그램을 외부와 연계하고 시설 내부 인적자원의 충분히 활용한다. ‘접근성’은 주된 커뮤니티시설을 집중배치하여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고 층별로 휴식공간과 같은 공용공간을 배치하여 자연스러운 만남을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연계성’은 한 공간이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동적인 공간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의 결과 노인과 청년 세대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세대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노인주거공간에서 커뮤니티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으로 거주민과 지역주민의 소통 및 활동을 지원해주고,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만남을 유도하는 동선으로 계획하며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2022년도 한국연구재단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사업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NRF-2022R1I1A3071544)

연령에 따른 주거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Influencing Housing Choice According to Age

김유민* • 김진서 • 양주연 • 최병숙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1학년*,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Kim, Yoomin* • Kim, Jinseo • Yang, Jooyeon • Choi, Byungsook
Department of Housing Environmental Desig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주택은 거주자의 삶을 반영하고 있어 주택을 계획하는 데는 거주자의 주거에 대한 생각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거주자는 주택을 선택하는 과정에 자신이 주거에서 무엇을 중요시 하는지를 더욱 잘 드러내게 된다. 이러한 거주자의 생각은 연령별로 차이가 있음이 충북지역을 대상으로 밝혀져(조현주, 박경옥, 2006), 본 연구에서는 전북지역 거주자들 대상으로 사회변화 흐름을 반영하여 연령에 따른 주거에 대한 생각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주택계획과 주거정책 수립 시 거주자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조사는 20대 35명, 30-40대 12명, 50-60대 1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23년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진행하였으며 설문도구의 내용타당도는 문헌근거로 전문가 판단으로 검증하였다. 조사자료의 분석결과, 20대는 내부적 요인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 외부적 요인에서는 직장거리, 위치와 교통을 중요시하였고, 30-40대는 내부적 요인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 외부적 요인에서는 교통을 중요시 하였으며, 50-60대는 내부적 요인으로는 쾌적한 주거환경, 외부적 요인으로는 의료, 복지시설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과 무관하게 내부적 요인인 쾌적한 주거환경을 공통적으로 중요시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판단해 볼 때, 젊은층과 중장년층의 주거선택에는 위치적 관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건강적인 관점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20대를 제외한 연령에서 외부적 요인인 공공기관이 가장 낮게 집계 되었으며 외부적 요인에서 20-40대까지는 교통을 가장 중요시 여기지만, 50-60대는 의료, 복지시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과 더불어 커뮤니티, 즉 지역자공심과 이웃과의 친밀도는 50-60대에서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주거의 의미와 주거선택의 결과를 연결지어 볼 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집의 의미와 역할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사회활동을 하는 젊은 층이 위치, 교통의 편리를 고려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으로 디지털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인터넷 접근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주거선택에도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 1인 가구 주거 양상에 관한 질적 연구 및 맞춤형 주택 제안

A Qualitative Study on the Housing Patterns of Single Youth Households and Proposal of Customized Housing

정지호* • 박지현 • 최병숙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1학년,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Jeong, Jiho* • Park, Jihyeon • Choi, Byungsook

Department of Housing Environmental Desig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우리나라 1인 가구는 2023년 7월 750만 가구를 넘어 전체 가구의 약 35%에 달하며 이 비율은 앞으로 만혼과 혼인 기피 현상 등으로 인해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상당수의 1인 가구는 외로움, 불안함 등의 심리적 문제, 안전과 위험, 건강 및 균형 있는 식사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어려운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청년이 새로운 주거 위기 가구로 떠오르면서 주거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의 주거 실태 현황을 조사하고 사례를 분석하여 청년이 생각하는 1인 가구 맞춤형 세어하우스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현장방문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청년 1인가구 주거 실태 파악을 위한 문헌조사는 전국의 사회형 주택 사례를 인터넷 자료와 문헌 자료를 통해 찾은 후, 각 주택의 특징을 비교·정리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장점들을 취합하여 청년 1인가구 맞춤형 주택 구상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 문헌자료 분석 결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은 22년 기준 12%이다. 전체 1인 가구가 약 35%임을 감안하면, 1인 가구 다수의 비중이 청년임을 알 수 있다. 청년 1인 가구는 주로 다가구(9.7%), 다세대(44.2%), 오피스텔(24.1%), 아파트(22%)에 거주한다. 이들 중 자가 비율은 11.5%에 불과한 반면 보증부 월세 비율은 52.7%로 청년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청년 1인 가구에게 필요한 정책으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41%로 높게 제시되었다. 2023년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세어하우스에 산다면?”을 가정하여 ‘세어하우스에 있었으면 하는 시설’, ‘세어하우스에 있었으면 하는 프로그램’, ‘세어하우스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세어하우스의 장점’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50명의 설문조사 분석결과에서는 ‘세어하우스에 있었으면 하는 시설’에 대하여 헬스장(44%), 카페 라운지(44%), 북카페(10%), 야외운동장(2%)을, ‘세어하우스에 있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동아리 프로그램(50%), 건강관리 프로그램(34%), 자립 프로그램(12%), 심리상담 프로그램(2%), 기타(2%)의 비율을 보였다. 10월 28일 전주시 사회형 주택 청춘 101(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에 현장 방문하여 외관을 관찰하고 문헌에 제시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주변 시설과 주변 주택들을 답사하였다. 현장 조사 분석 결과, 무인 택배함, 건물 시설이 외관상 깨끗함, 보안이 철저함과 같은 장점이 있었고 교통이 혼잡, 사거리 신호등 미설치로 보행시 위험, 주차 공간 협소와 같은 단점이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청년형 맞춤형 세어하우스 주택을 연구자가 제안하

면, 층으로 개인주거공간과 공동 세어공간이 구분되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공동 세어 공간은 공간중심의 헬스장, 카페 라운지 등 공용 공간과 프로그램 운영 중심의 다양한 청년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구성을 제안한다. 그리고 공용과 수직층으로 구분하여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주거공간배치, 옥상층을 활용한 옥상정원의 휴식 공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학생논문구두발표 경진대회

학생논문 구두발표 경진대회

의생활 분야

패션기업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지? :

자기소개서 문장 내용분석

How to Write a Cover Letter for Fashion Industry Employment: A Content Analysis of Cover Letter Statements

주가은^{1*} • 권진원¹ • 허솔민¹ • 심수인²

¹전북대학교 의류학과 학사과정, ²전북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전북대학교 인간생활과학연구소

Ju, Ga-Eun^{1*} • Kwon, Jinwon¹ • Heo, Solmin¹ • Shim, Soo In²

¹Department of Fashion Desig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²Department of Fashion Design, Jeonbuk National University/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패션기업은 주로 제조업과 도·소매업에 속하는데,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제조업에서는 도전정신, 책임의식, 소통·협력 순으로 그리고 도·소매업에서는 책임의식, 소통·협력, 전문성 순으로 인재상을 내세운다. 패션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의류학과 학생은 도전정신, 책임의식, 소통·협력, 전문성 역량을 자기소개서를 통해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패션기업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 문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도전정신, 책임의식, 소통·협력, 전문성이 부각되어 보일지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 자기소개서 문장을 대상으로 한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졸업을 앞둔 의류학과 4학년 학생들이 작성한 자기소개서 내 105개 문장을 수집하고 내용분석을 통해 질적자료를 계량화했다. 코딩 기준으로 대한상공회의소의 『100대 기업 인재상 보고서』에서 제시한 10개 인재상 역량을 활용했다. 코더는 의류학과 전임 교원 1인과 의류학과 4학년 학생 6명으로, 사전에 『100대 기업 인재상 보고서』를 읽고 10개 역량의 정의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 독립적으로 자기소개서 문장 평가에 임했다. 10개 역량 정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1=매우낮음, 5=매우높음) 측정했으며, 해당 역량과 관계없는 경우 0으로 코딩했다. 코더 간 신뢰도로 교수자평가와 동료평가 간 일치도를 산출한 결과, 0.76인 것으로 나타나 0.70 이상으로 신뢰성을 확보했다. 교수자평가와 동료평가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기술통계를 실시하고(SPSS 27 ver. 활용), 패션기업의 인재상 역량에서(즉, 도전정신, 책임의식, 소통·협력, 전문성) 높은 값을 기록한 문장을 도출하였다. 기술통계 분석 결과, 도전정신($M = 1.4$, $SD = 1.5$), 책임의식($M = 1.5$, $SD = 1.6$), 소통·협력($M = 1.5$, $SD = 1.6$)이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지만 전문성은($M = 1.0$, $SD = 1.6$) 다소 낮게 평가되어,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보강하여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각 인재상 역량에 따른 자기소개서 문장 분석 결과, 도전정신 역량이 높게 평가된 문장은 학문적 도전, 자기개발을 위한 지속적 도전, 그리고 확실한 동기로 인한 도전 등 몇몇 유형으로 분류 가능했다. 자신의 도전정신이 어떤 종류인지 구체화하여 서술하고, 적극적 태도와 성공을 위한 자신감과 의지를 강하게 전달하는 문장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책임의식 역량이 높게 평가된 문장은 ‘책임’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부각시키는 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하며 팀원들과의 협력과 함께 조직의 발전에 기여하는 리더십이 강하게 드러났다. 소통·협력 역량이 높게 평가된 문장은 원만한 대인관계와 인간관계에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특징이 도출되었다. 전문성 역량이 높게 평가된 문장은 ‘2배’, ‘국가우수장학금’과 같이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거나 증빙 가능한 경력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개인적 관심에 의한 교외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전문성이 드러났으며, 조직 내에서 자신의 독보적인 능력을 통해 조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 전문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연구는 패션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이 기업의 인재상에 부합하게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을 돕는다는 점에서 실용적 의의를 갖는다.

발목 염좌 예방 및 통증 완화를 위한 3D 프린팅 발목 보호대 개발

Development of 3D printing ankle protector to prevent ankle sprain and relieve pain

김태은* • 김세현 • 류다미¹⁾ • 민경의¹⁾ • 이희란^{2)*}

금오공과대학교 소재디자인공학과 학부과정, ¹⁾금오공과대학교 소재디자인공학과 석사과정,

²⁾금오공과대학교 소재디자인공학과 조교수

Kim, Taeun* • Kim, Sehyeon • Ryu, Dami • Min, Gyeong-ui • Lee, Heeran

Department of Materials Design Engineering,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발목 염좌는 활동량이 많은 20대에서 많이 나타나는 질병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굽이 높은 신발 착용 시 발목의 해부학적 구조상 발목을 접질리기 쉬우므로 부상 발생률이 높다.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신발 착용 실태 조사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 여성의 37~49 %가 높은 굽의 신발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하이힐 착용 여성의 약 59 %는 하루 동안 하이힐을 약 1~8시간 착용하며, 10시간 이상 착용하는 경우 근골격계에 부담을 느낀다고 한다. 하이힐을 장기간 착용하게 되면 신체 무게 중심이 이동함에 따라 발에 스트레스를 주고 신체 정렬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또한, 여성들의 하이힐 착용에 따른 발목 통증 유발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하이힐 착용 시 다리와 엉덩이 근육의 약화로 인해 신체의 불균형이 나타나 발목 통증이 심해진다는 결과도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목염좌 발생률이 높은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발목 염좌 예방 및 통증 완화를 위한 3D 프린팅 지지대와 밀착형 발목 보호대를 개발하고자 한다. 3D 프린팅 지지대 개발을 위해 사이즈코리아 20대 여성 평균 발 사이즈에 해당하는 대표 피험자를 선정하여 석고 형상을 제작한 후 3D 스캐너를 이용하여 3차원 인체 데이터를 얻었다. 3차원 발 데이터를 활용하여 발목 지지대를 디자인하고 두께별 모델링을 한 후 프린팅하였다. 이때 지지대 디자인 라인은 보행 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발목의 안쪽 변형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내측과 외측으로 분리하여 설계하였다. 또한, 지지대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복사뼈를 제외한 부분을 지지하도록 디자인하였다. 이때 지지대는 변인은 두께 2종(2 mm, 3 mm)과 출력 내부밀도 4종(10 %, 30 %, 50 %, 100 %)으로 정하였고, 프린팅 재료는 유연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TPU로 정하였다. 발목 보호대 패턴은 스캔한 3차원 데이터에 발목 보호대 디자인 라인을 그린 후 3차원 데이터를 2차원으로 전개하여 설계하였으며, 네오프렌 소재를 사용하여 발목 보호대를 제작하였다. 지지대 변인 8종 중 부위별 최적의 지지대 두께와 내부밀도를 선정하기 위해 7점 리커트 척도(1점: 매우 불만족, 4점: 보통, 7점: 매우 만족)를 사용하여 주관적 착의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때 평가는 개발한 발목 보호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평지 보행 15분, 계단 보행 5분, 앉았다 일어서기 10회 동작을 수행한 후 진행하였다. 평가 항목은 3D 프린팅 지지대의 지지정도, 압박정도, 지지면적, 밀착정도를 평가하였다. 착의 평가 결과, 외측은 두께 3 mm, 내부밀도 100 %의 지지대, 내측은 두께 3 mm, 내부밀도 50 %의 지지대가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3D 프린팅 발목 보호대는 외측 두께 3 mm, 내부밀도 100 %, 내측 두께 3 mm, 내부밀도 50 %의 지지대를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발목 보호대는 착탈의가 편하고 3D 프린팅 지지대가 발목 굴곡에 맞추어 불편함 없이 발목을 지지해줄 수 있다. 따라서 평소 높은 굽의 구두 착용이 잦은 20대 여성의 발목 염좌 예방 또는 통증 완화에 효과적일 것이라 기대된다.

*Corresponding author: Heeran Lee (heeran@kumoh.ac.kr).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SIT) (NRF-2023R1A2C2005376).

학생논문 구두발표 경진대회

식생활 분야

글루텐 프리 한방스낵의 품질평가

Quality Evaluation of gluten-free snack fortified with oriental herbal ingredients

김소희¹ • 유 민^{1*} • 장수빈¹ • 장진우¹ • 정예림¹ • 최일숙^{2, 3}
 원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¹*, 원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², 원광대학교 생활자원개발연구소 소장³

Kim, SoHee¹ • Yoo, Min^{1*} • Jang, SooBin¹ • Jang, JinWoo¹ • Jung, Yerim¹ • Choi, IlSook^{2, 3}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Wonkwang University^{1,2}, Institute for better living³

소비자의 기호 다양성 및 간단 식품 추구 등은 스낵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졌으며, 소비자들은 건강과 향미 등을 고려한 스낵에 대한 니즈가 있어 최근 많은 스낵 제품들이 개발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글루텐 프리 스낵에 한방 소재를 첨가한 글루텐 프리 한방 스낵의 제조 및 품질 평가를 진행하였다. 글루텐 프리 한방스낵 제조를 위하여 밀가루 대신 쌀가루를 사용하였으며, 쌀은 세척해 24시간 동안 냉장 상태에서 수분 제거와 건조 및 분쇄하여 mesh를 통과시켜 입자를 균질화 하였다. 또한 식품 사용 가능한 한방소재 8종을 함께 가열하여 추출 및 열풍건조 처리 후 쌀가루와 동일하게 mesh를 통과하여 입자를 균질화하였다. 균질화된 한방소재 분말(0%, 1.25%, 2.5%, 3.75%, 5%)을 각각 쌀가루에 첨가하여 스낵을 제조하였으며, 제조된 스낵은 이화학적 특성 분석 및 항산화 성분과 활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글루텐 프리의 한방스낵에 대한 수분함량은 무첨가군 스낵(1.43%)이 가장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한방소재 첨가에 따라 유의적 감소하여 5% 첨가군(1.26%)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고, 한방소재 첨가군 사이에서는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조회분 함량은 한방 소재가 첨가될수록 유의적 증가를 나타냈으나, pH의 경우는 한방소재 무첨가군에서 pH 6.49이었고 한방소재가 첨가될수록 유의적 감소를 나타내어 5% 첨가군에서는 pH 5.08로 감소가 나타났다. 색도는 명도(L* value), 적색도(a* value), 황색도(b* value) 모두 한방소재가 첨가될수록 유의적 감소 경향을 나타냈고, 460nm에서 측정된 갈색도 또한 색도의 경향과 유사하게 한방 소재 첨가에 따라 갈색도도 증가를 나타냈다. 한방스낵의 총당과 환원당 함량은 한방소재가 첨가될수록 유의적 증가를 나타냄으로, 한방소재의 첨가에 따라 스낵의 단맛 증가 경향을 알 수 있었다. 항산화 성분인 total polyphenols과 total flavonoids의 분석 결과, 한방 소재 무첨가군에 비하여 첨가농도가 증가될수록 항산화 성분인 total polyphenols과 total flavonoids도 농도 의존적 증가가 나타났다. 항산화 활성을 분석하는 DPPH radical scavenging, ABTS radical scavenging,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Reducing Power의 결과에서도 한방소재 성분의 첨가에 따른 농도 의존적이며 유의적인 항산화 활성능의 증가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한방소재 성분이 첨가될수록 스낵의 단맛과 신맛의 증가와 함께 항산화 성분과 항산화 활성 등이 함께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어 향후 소비자에게 건강 증진과 더불어 기호적 맛의 향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한방스낵으로의 제품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생논문 구두발표 경진대회

아동·가족 분야

어머니와의 초기부모애착이 신입생의 대학 내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Early Parental Attachment with Mother on Social Adjustment of Freshmen in College

서진선* • 김영민 • 박신혜 • 민하영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석사과정, 아동학과 교수

Seo, Jin Seon*, • Kim, Young Min, • Park, Shin Hye • Min, Ha Yeoung

Department of Child Studies, Daegu Catholic University

1. 서론

2023년은 포스트 코로나 원년의 해로 대학 캠퍼스에 대면 교육이 본격화되었다. 23학번 신입생 대부분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고교 생활을 시작하고 마침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 형성에 제한적 시기를 보낸 세대다. 고교 시절 대부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제로 제한된 사회적 관계를 경험한 신입생들에게 대학생활 내 사회적 적응은 대학적응을 평가하는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신입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적응 중 사회적 적응을 중심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파악을 통해 신입생 대학생들이 보다 성공적인 대학적응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의 초기부모애착관계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후, 초기부모애착의 중요 차원인 애착불안, 애착회피가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 중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초기부모애착이란 개인과 애착 대상인 양육자, 즉 부모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정서적 유대 관계를 의미한다. 이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2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4가지 범주로 유형화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 연구에서는 초기부모애착을 차원(dimension)과 범주(category)적 측면에서 각각 접근하여 신입생의 초기부모애착과 대학 내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대구 경북지역 대학교 신입생 대상으로, 7점 척도로 이루어진 김미선(2016)의 초기부모애착 문항, 9점 척도로 이루어진 Baker와 Stryk(1984)의 대학생활적응 문항에서 사회적 적응 하위요인을 이용하여 자료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의 쌍체 t검증, 중회귀분석, 일원변량분석, k-평균 군집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신입생이 어머니와 형성한 초기부모애착은 대학 내 사회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애착불안($\beta = -.24, p < .001$)을 가지고 있는 학생보다 회피애착($\beta = -.32, p < .001$)을 갖고 있을 경우 대학 내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기부모 안전 애착 유형의 신입생은 불안전 애착 유형의 신입생에 비해 대학 내 사회적 적응이 유의미하게 높았다($t = 4.90, p < .001$). 특히, 대학생의 사회적 적응은 초기부모 애착 유형인 안전형, 몰입형, 무시형, 비조직화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F_{(3, 221)} = 10.94, p < .001$), 안전형의 대학 내 사회적 적응의 평균은 다른 유형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어머니와 어린 시절 안정 애착을 형성한 신입생은 대학생활 내 사회적 적응을 보다 성공적으로 이룬다는 것을 시사하며, 어린시절 부모와 형성하는 안정 애착이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신입생의 대학 내 사회적응이 생애초기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의 질에 의해 영향 받는다는 사실은 대학 내 학생상담소를 중심으로 한 대학생활 적응프로그램 운영이나 개발 또는 전공 내 교수 상담 시 이와 관련된 사안에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학생논문 구두발표 경진대회

주생활 · 소비자 · 가정교육 분야

노후주택의 소음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계획안

Green Remodeling Plan for Noise and Indoor Air Quality Improvement of the Deteriorated House

이연화* • 이하나 • 정윤서 • 김진표 • 정가이 • 신수영
충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학사과정*, 충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강사

Lee, Yeonwha* • Lee, Hana • Jung, yoonseo • Kim, Jinpyo • Cheng Jiayi • Shin, Sooyoung
Department of Housing & Interior Desig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본 연구는 1997년 준공된 노후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계획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노후 단독주택의 그린리모델링 계획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에 위치한 지상 1층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2023년 4월 7일 현장방문하여 거주자 면접조사와 주택의 물리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수집 및 관찰기록 조사를 수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건축물 에너지평가 프로그램인 ECO2를 활용한 에너지모델링을 통해 에너지요구량, 에너지소요량, 1차에너지소요량 등을 산출하였다. 또한 현장조사로 수집된 실내환경분석 자료와 에너지성능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 주택에 적용 가능한 그린리모델링 계획요소를 도출하였다.

조사 결과 1) 주변 환경분석 결과 대상 주택은 주변 발의 농기계 작업, 군부대 훈련으로 소음이 발생하고 있었고, 2) 벽체, 창호, 지붕, 바닥의 열관류율은 허가 연도 법적 기준에 준하여 단열성능이 미흡하였으며, 3) 노후화된 냉난방 설비 및 조명은 에너지효율의 개선이 필요하였다. 4) 리모델링 전 ECO2 에너지모델링 결과, 연간 등급용 1차에너지소비량이 367.2kWh/m²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이 6등급으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효율의 개선이 필요하였다. 5) 공간별 실내환경 분석 결과, 모든 공간에서 외부 먼지와 소음 유입의 문제가 있어서 이를 방지할 차음 대책과 환기시스템 마련이 필요하였고 건물 외피의 단열성능 저하와 어두운 조명의 저효율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건물의 에너지 효율 및 자립을 위한 고효율 난방장치와 LED 조명,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였고, 단열성능 향상을 위한 외단열 시공 및 창호 교체 및 기밀시공을 하였다. 또한 차음성능 향상을 위하여 차음 외장재 시공과 고성능 창호 유리를 설치하고,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폐열 회수형 환기시스템을 설치하였다. 계획안에 따른 ECO2 에너지모델링 기대효과는 연간 단위 면적당 에너지요구량이 33.2% 감소하였고, 1차에너지소요량은 54.3% 감소하였다. 이로써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도 6등급 수준에서 2등급 수준으로 상향되었다. 또한 태양광 패널 설치로 에너지자립률도 15.7%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거주자 면접조사와 대상 주택 및 실내환경에 대한 현장조사, ECO2 에너지모델링을 통하여 건물의 실내환경 및 에너지 관련 설비 현황을 평가·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거주자의 거주성 향상과 에너지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계획안을 도출하고 기대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로써 현재 노후단독주택의 그린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시급하며, 개인의 노후주택관리 차원에서 일반리모델링에 그치지 않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그린리모델링으로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

농촌주택에 거주하는 노부부의 쾌적성 향상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계획안

Green Remodeling Plan for Indoor Environment Quality Improvement of the Rural House

조유리* • 고예진 • 박지은 • 장병준 • 홍상문 • 신수영
충북대학교 주거환경과 학사과정*, 충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강사

Joe, Yuri* • Go, Yejin • Park, Jieun • Jang, Byeongjun • Hong, Sangmun • Shin, Sooyoung
Department of Housing & Interior Desig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현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누적 CO₂ 배출량 제한과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마련하는 등 전 지구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노후된 건축물의 단열, 설비 등의 성능을 개선하여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을 현장방문하여 실내환경 및 에너지관련 설비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물의 환경성능 향상 및 에너지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그린리모델링 계획요소를 도출하고, ECO2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에너지절감률 및 환경성능 개선의 기대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1개 노후단독주택을 대상으로, 2023년 4월에 주택을 현장방문하여 거주자 인터뷰, 자료수집, 관찰기록조사 및 사진촬영을 수행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ECO2 에너지 모델링을 통한 주택설비의 에너지분석을 진행하여 에너지 요구량과 소요량, 1차에너지 소요량을 산출했다. 또한 실내환경 분석을 통해 주택에 적용가능한 그린리모델링 계획요소와 해당 계획에 맞는 제품과 설비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제품과 설비를 적용하여 최종 그린리모델링 계획안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에너지 절감률과 환경성능 개선 효과를 분석하였다.

계획안에 따른 기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리모델링 후 등급용 1차에너지 소요량은 117.1kWh/m²·년으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7등급 수준에서 1+등급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외단열시공, 고성능창호 교체를 통해 에너지요구량을 감소시켰으며, 공기열히트펌프보일러, 고효율EHP 설치를 통해 에너지소요량을 감축시켰다. 또한 태양광패널을 설치하여 에너지자립률을 높이고, 빗물저장장치를 설치하여 자원활용을 도모하였다. 또한 거주성 측면에서도 고성능창호의 기밀시공과 차음성있는 외장재시공으로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전동식 차양장치를 설치하여 일조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계단실 핸드레일과 플리커프리 LED조명을 설치하여 노인 부부의 층간이동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이와같이 본 연구는 노후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건물의 실내환경 및 에너지관련 설비 현황을 평가·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거주자의 경제성 및 쾌적성, 친환경성 측면에서의 그린리모델링 계획요소를 도출하여 제안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공공건축물 중심의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에서 민간건축물이며 그중에서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한 그린리모델링의 필요성과 개선효과를 평가하고자 한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시범사업 예비입주가구 대상 주거서비스 요구도 조사

A Survey on the Demand for Housing Service for Pre-occupant Households in the Integrated Public Rental Housing Pilot Project

김민기* • 권오정 • 장미선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석사과정*,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정교수,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부교수

¹⁾Kim, Mingi* • ²⁾Kwon, Ohjung • ¹⁾Jang, Miseon

¹⁾Department of Housing Environmental Desig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²⁾Department of Architecture, Konkuk University

정부에서는 국정과제 및 주거복지로드맵(2.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을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21년도 하반기 과천(지식정보타운 S10)과 남양주(별내지구 A1-1BL)에 첫 시범사업단지 승인이 이루어졌다(국토교통부, 2020). 2022년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거생활서비스 新운영체계 개편안’을 제시하면서 주거서비스를 확대·공급 하겠다 밝혔다. 한편,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기존 공공임대주택보다 입주민의 특성이 다양하게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주택단지에 제공되는 주거서비스에도 거주자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새로이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가구의 주거서비스 요구수준을 파악하여, 향후 주거서비스 운영방향에 설정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했고, 계약자 정보를 활용하여 설문조사 링크 발송, 응답결과를 수집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개발된 조사도구의 항목은 ①일반적 특성, ②주거서비스 요구, ③주거서비스 인식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022년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총 21일간 실시하였다. 과천(543명)과 남양주(437명) 계약자 980명 중 총 305명분 응답이 회수되었으나, 289명의 유효결과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 일반적 특성은 남성이 50.9%로 여성보다 조금 더 많았으며, 연령 평균은 46.7세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는 1인 가구가 43.5%, 2인 가구 26.3%, 3인 가구 13.7% 순이고, 평균 2.07명 수준이다. 가구특성은 ‘주거약자(노인/장애인)’가 33.9%로 가장 많았고, ‘대학생/대학원생/사회초년생’이 26%로 다음을 차지했다. ‘(예비)신혼부부/미취학 아동’이 23.9%, ‘초등학생/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는 12.8%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217.01만원($SD=138.12$)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주거서비스 요구로는 기초생활서비스, 생활편의서비스, 수요맞춤서비스의 세부 프로그램별 요구조사를 실시하였고, 4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요구도 조사 결과, 대분류별 요구도 평균은 기초생활서비스(3.16점)>수요맞춤서비스(2.78점)>생활편의서비스(2.72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초생활서비스의 중분류별 요구도 평균은 ‘공동생활’(3.26점)>‘안전·위생’(3.25점)>‘에너지’(3.09점)>‘집관리’(3.03점) 순으로 높았다. 수요맞춤서비스의 중분류별 요구도 평균은 ‘상담서비스’(2.86점)>‘일자리’(2.85점)>‘심리지원’(2.80점)>‘교육’(2.79점)>‘돌봄’(2.59점)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편의서비스의 중분류별 요구도 평균은 ‘건강증진’(3.01점)>‘여가문화’(2.98점)>‘나눔상생’(2.77점)>‘개인생활편의’(2.71점)>‘커뮤니티’(2.52점)>‘공유경제’(2.34점) 순으로 높았다. 주거서비스 인식으로는 주거서비스 이용의향과 주거서비스 비용 지불의향을 조사하였다. 먼저, 주거서비스 이용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94.8%였으며, 의향이 없는 경우 중 26.7%는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비용이 부담돼서’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주거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90.3%가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했으며 그들 중 60% 이상이 주거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1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서비스 요구도 조사를 실시한 연구로, 실질적 수혜계층인 예비입주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요구조사 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제공될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 운영방안을 수립하는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선호하는 주거정책의 지원에 따른 결혼의향의 변화

Changes in Marriage Intentions After Supporting Preferred Housing Policy

김지윤* • 장미선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석사과정*,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부교수

Kim, Jiyun* • Jang, Miseon

Department of Housing Environment Desig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2022년 혼인건수는 약 19만건으로, 지난 2016년 20만건대로 혼인건수가 감소한 이래 지속적으로 10만건대에 머무르고 있다(통계청, 2022). 결혼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변화함에 따른 영향도 있겠으나, 결혼을 원하는 청년들의 경우에도 높은 주거비 등 결혼관련 비용의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전윤영, 2018). 이에 정부에서는 주거문제로 인한 결혼 기피를 해소하고자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에 따라 전체 저출산 관련 예산 중 30%가 주거정책 예산으로 구성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 당사자인 청년가구의 정책 선호를 파악하고, 선호정책의 지원에 따른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혼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정책의 선호와 선호 정책의 지원에 따른 결혼의향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온라인 설문조사로, 평균 초혼 연령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1차 선정 후 상하위 10%를 제외하여 80%에 해당하는 연령층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차적으로 취업한 무주택자로 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도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초안을 개발, 전문가 조사와 사전조사를 걸쳐 완성하였다. 조사는 2023년 8월 19일부터 총 4일간 실시되었고,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 응답 등을 제외한 310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 특성으로 응답자는 여성이 51.3%로 남성보다 다소 많았고, 평균연령은 30.3세였다. 최종학력은 전문대/대학졸업자가 88.1%였고, 직장인이 97.4%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응답자는 1인가구가 72.3%, 2인가구와 3인가구가 모두 11%대를 차지하였다. 응답자들은 주로 수도권과 다세대/다가구주택 거주가구의 비중이 많았다. 둘째, 결혼을 고려할 때 주거문제의 중요도에 대해 응답자들은 5점 만점기준 4.44점으로 중요하게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매우중요’로 응답한 경우가 57.4%로 과반을 넘었고, ‘약간 중요’까지 포함한 면 약 90%를 차지하였다. 셋째, 결혼을 고려할 때 필요한 주거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선호하는 필요한 주거특성에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결과, 전체 특성에 대해 대체로 높은 요구를 보였는데, ‘저렴한 주거비’가 평균 29.01점으로 가장 높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25.79점),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25.62점), ‘원하는 만큼 거주가능한 거주 안정성’(19.67점)의 순이었다. 넷째, 결혼 고려 시 선호 정책 역시 100점 만점으로 기준으로 선호 정책에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결과, ‘주택금융대출’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23.53점), ‘주거비지원’(22.20점), ‘공공임대주택’(20.15점), ‘분양주택특별공급’(19.05점), ‘공공분양주택’(15.18점) 순으로 선호되었다. 응답자들은 평균 4.15개의 정책을 중복 선호하였고, 1개의 정책만을 선택한 응답자는 1.3%에 불과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호하는 정책을 지원할 때 결혼 의향의 변화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는 21.6%를 차지하였고, 나머지는 주거지원시 결혼의향이 향상될 것으로 응답하였다. 약 22.6%의 응답자가 20% 이상 결혼 의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80%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20.6%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결혼을 고려할 때 미혼청년가구가 인식하는 주거문제의 중요성과 주거선호, 그리고 주거정책의 선호를 파악하고, 선호 정책의 지원에 따른 결혼의향의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주거정책의 잠재적 효과를 증명하였다. 본 연구는 결혼을 고려하는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정책의 추진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한국생활과학회 2023년도 정기총회 및 동계연합학술대회 자료집

The Proceedings of 2022 Summer Conference of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발행일 2023년 12월 1일

발행인 유현희

발행처 (사)한국생활과학회

우54150,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58 군산대학교 자연대 3호관 1층 3113호

010-4085-5433 www.kahe.or.kr kahe@kahe.or.kr

주 관 (사)한국생활과학회, 충북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후 원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군산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단,

군산원예협동조합, 교문사, 파워북, (유)경암, 군산홈마트,

영인바이오, 순수람, 산돌팜, 제이온, 대두식품, 엘에프에스

[본점]
군산시 하포로 29
063)468-2001~4



[문화지점]
군산시 나운로 4
063)462-3801~2



[자곡지점]
군산시 백토로 239
063)461-2161~2



[공평점(판매)]
군산시 하포로 29
063)468-2002~3



[영농자재구매과]
군산시 하포로 29
063)460-3704



[종량제봉투사업소/리먼판매사업소]
군산시 하포로 29
063)446-0292



[죽성지점]
군산시 큰샘길 49
063)445-3818~9



군산빔빔라면

- 환절철보리 및 감자가 주재료
- 대부분 재료가 국내산
- 해산물을 활용한 액상스프



빔사빠까

- 환절철보리 40%가량 함유
- 아이들도 좋아하는
- 우리가족 간식, 보리스낵



군산빔빔볶면

- 군산빔빔라면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볶면
- 해산물을 활용한 액상스프



채소라면

- 국내산 밀과 감자로 만든 라면
- 면과 스프 모두 채소로 만든 라면

군산원에농협 라면판매사업소 (군산시 하포로 29)

주문전화_010-2102-0292(주문시 이름, 주소, 연락처를 문자로 주세요)

계좌번호_농협 351-0841-9339-83(군산원에농협)

LFS 엘에프에스(주)

본 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곡로 516-19
전북지사 : 군산시 조촌안 3길 15(조촌동)
Tel. 063)453-4914 Fax. 063)453-4915
E-mail. whois7777@hanmail.net

맛의 고장 전라도 대표 쇼핑몰 "식명관"

20여년의 경험을 토대로 프리미엄 명품 식재료만 판매하는 쇼핑몰을 오픈했습니다.
판매하는 모든 상품을 직접 맛보고 평가하여 산지에서 바로 보내드립니다.
LFS(주)의 새로운 첫 시작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제품소개



LFS 고춧가루



LFS 통깨참기름



물엿(고백당)



대두유(식용유)



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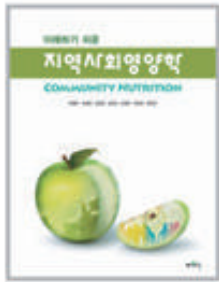


고추장

파워북

www.powerbook.kr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25
동문타워 2차 529호
TEL 02-730-1412 FAX 031-908-1410



이해하기 쉬운
지역사회영양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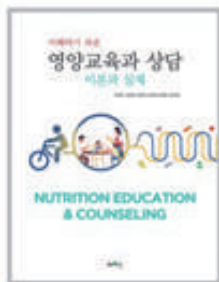
이해하기 쉬운
식생활과 건강



이해하기 쉬운
생애주기영양학



이해하기 쉬운
식생활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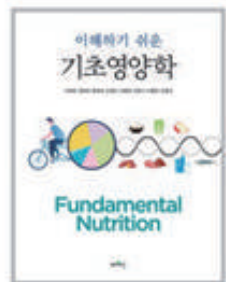
이해하기 쉬운
영양교육과 상담
-이론과실제-



이해하기 쉬운
세계 속의 음식문화



이해하기 쉬운
고급영양학



이해하기 쉬운
기초영양학

책 으로

교문사의 사람들은,
출판은 제2의 교육이란 신념이념 아래
책임감을 갖고 책을 만듭니다.

미래 를

그 책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비추는

교문사는,
경영경제, 식품영양, 의학,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대학교재와
중·고등 교과서, 단행본 등을 발행한 출판사로써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비추겠습니다.

사람 들

교문사

교문사는 교수님들의 소중한 원고를 모아 더 좋은 책을 만들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1번 | www.gyomoon.com
TEL 031) 955-8111-4 / FAX 031) 955-0955 | genie@gyomoon.com



새로 나온 책





창업이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올바른 제품 개발과 생산을 목표로 합니다.
고집스런 전통 제조방식과 끊임없는 연구개발,
그리고 소비자를 생각하는 마음과 사회적 문제해결까지
생각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식품을 진실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대두식품의 오늘을 만든 원동력입니다.

그런 이유로 대두식품은 창립 이래 '무방부제 생산'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식품 생산의 근간은 이로움과 정직하여야 하기에 그 신념이 오늘날 대두식품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두식품은 양금과 배기, 쌀가루를 생산하는 식품 기업입니다.
모두 제과와 제빵, 더 나아가 제병과 관련이 있는 식재료들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훈, 열정, 미래' 이 세 가지는 대두식품의 식품을 바라보는 태도이자 시선, 철학이기도 합니다.

저희 대두식품을 믿고 성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발전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더 맛있고 건강한 제품들로 보답하겠습니다.

(주)대두식품 대표이사 **조 성 용**





제이온은 안심먹거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유아용 식품 전문 기업입니다.

식품에 대한 기본에서 사회적 문제까지
끊임없는 생각과 연구는 소비자 중심의 제품과
서비스로 실현됩니다.

급변하는 해외 시장의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제이온과 함께 할 여러분을 모십니다.



농업회사법인 (유)산돌팜

대표자 홍진웅
사업자번호 860-86-01948
주소 전북 군산시 성상면 여방1길 107
TEL 063-452-1120
E-mail sandollfarm@gmail.com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지역업체인 산돌팜에서 군산특산물로 유명한 '꼬꼬마양배추'를 이용한 음료개발에 성공해 주목을 받고 있다.

군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와 공동으로 연구(책임연구원: 유현희교수)해 선보이게 된 '무작꼬꼬마양배추사과' 음료는 HACCP 인증을 획득한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산시설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지역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꼬꼬마양배추는 일반 양배추보다도 비타민U, K 등 영양분이 2배 이상 풍부한 채소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미래클 K식품으로 선정한 프리미엄 채소이다.

<NSP 통신 2022년 11월9일 기사 중 발췌>

보이지 않는 공기를 보이게 관리합니다

조리실, 급식실, 식당, 산업현장, 학교, 관공서 등

대형공간에 최적화 된 공기살균청정기



(유) 경 암

대표이사 김 태 수
M. 010-3620-0343

ONEACE

(주)원에이스

구입문의

· 공기 정화 살균시스템
AZERO(아제로 A-300)

KC인증

특허인증

· 필터 주문/문의

지역본부 (유) 경 암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36, 203호

M 010-3620-0343 F 063-920-4010



99.5%
부유바이러스 제거율



90%
유해물질 탈취율 (평균)



99.6%
미세먼지입자 정화능력

프리필터, 13등급헤파필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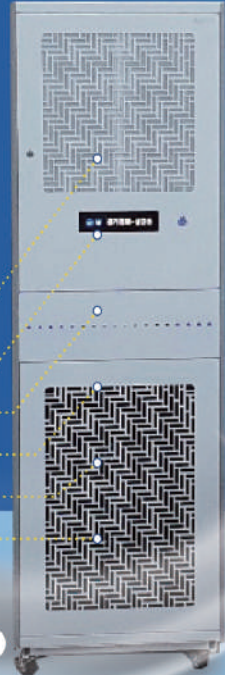
공기정화 살균 중

3년보증 강력모터

특허 난반사 살균모듈박스

플라즈마 이온나이저

헤니콤 카본필터



AZERO 아제로

KC인증

특허인증

자외선 살균박스(특허 10-*****)와
플라즈마 이온모듈을 탑재, 공기청정과 바이러스살균,
휘발성 유기화합물까지 제거하는 복합형 제품입니다.
실내공기 오염물질 분해정화 살균시스템 국내최초 특허(디자인등록 30-1197939)
조리후와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을 제거



상호 |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애농
대표 | 이복이 Tel | 063-433-2454

순수람 채담카레

저희 회사는 농업을 사랑한다고 해서 애농이라고 하고요. 브랜드는 순수한 바람의 약자로 순수람이라고
우리나라 농업에 순수한 바람이 되고 싶다는 뜻이고요. 일본에서 12년간 농업을 공부했고 배운지식을
우리 농촌에서 실천해 보고 싶어서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천춘진입니다.

직접 재배한 새싹 7종을 넣어

「건강한 채담카레」

자연의 맛을 그대로 담은 채담카레는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일본식 카레입니다.



행사장 약도



행사장소 | 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 군산대학교 아카데미홀
점심식사 | 학생생활관 식당



국립군산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 산학협력단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한국생활과학회



충북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우54150,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58 군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 3호관 3113호
010-4085-5433 kahe@kahe.or.kr <http://www.kahe.or.kr> <http://kjhe.jams.or.kr>